

National Repertory Season

국립극장
레퍼토리시즌
2025-
2026

국립극장
해오를
달오를
하늘

2025.
08.20.
- 2026.
06.28.

국립극장
레퍼토리시즌
2025-2026

공연 일정

국립창극단

국립무용단

국립국악관현악단

국립극장 기획

공동주최

인사이드 국립극장

국립극장 공연 및 편의시설

2025-2026 국립극장 레퍼토리시즌 패키지 티켓

예매안내

8.20.(수) | 국립국악관현악단·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 광복 80주년 기념음악회
화합

8.20.(수)–8.21.(목) / 8.24.(일) | 세계무용연맹한국본부
라이즈 댄스 페스티벌

8.23.(토) | 국립국악관현악단
• 관현악시리즈 | **어쿠스틱**

8.28.(목)–8.31.(일) | 국립극단 어린이청소년극연구소
• 위험한 놀이터

9.3.(수)–9.6.(토) | 국립창극단
• **심청**

9.4.(목)–9.7.(일) | 국립극장 기획
• 무장애공연
다정히 세상을 누리면

9.6.(토)–9.7.(일) | 창극 중심 세계 음악극 축제
• 판소리아지트 놀에박스
종이꽃밭: 두할망본풀이

9.10.(수) | 국립국악관현악단
• 관현악시리즈 II
2025 작곡가 프로젝트

9.12.(금)–9.13.(토) | 창극 중심 세계 음악극 축제
• 흥룡 아츠 페스티벌
죽림애전기

9.13.(토)–9.14.(일) | 창극 중심 세계 음악극 축제
• 창작하는 타로
정수정전

9.17.(수)–9.18.(목) | 창극 중심 세계 음악극 축제
• 노후카·망한가(能恨歌)
망한가(望恨歌)

9.17.(수)–9.20.(토) | 국립무용단
• **사자(死者)의 서(書)**

9.19.(금)–9.20.(토) | 창극 중심 세계 음악극 축제
• 노후카
노가쿠: 노와 교겐

9.25.(목)–9.26.(금) | 국립창극단
• 창극콘서트
토선생, 용궁가다

9.26.(금)–9.27.(토) | 홍콩발레단
• **로미오 + 줄리엣**

9.27.(토) | 국립창극단
완창판소리

9.27.(토)–9.28.(일) | 국립창극단
• **2025 창극 작가 프로젝트 시연회**

10.2.(목) | 국립국악관현악단
• **정오의 음악회**

10.2.(목)–10.3.(금) | 전유오
• 춤·소리·어울림
토지

10.9.(목)–10.10.(금) | 극단 뱃마루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

10.10.(금)–10.12.(일) | (사)케이글로벌발레원
• **인어공주**

10.11.(토) | 국립창극단
완창판소리

10.17.(금)–10.18.(토) | 2025 서울국제공연예술제
• (라)오흐드 X 론 X 마르세유 국립 발레단
룸 위드 어 뷔

10.25.(토) | 국립국악관현악단
• **국악가요**

10.26.(일) |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 **긴산조 협주곡 II**

10.28.(화)–10.29.(수) | 장선희발레단
호두까기인형 in Seoul

10.30.(목)–10.31.(금) | 국립극장 기획
• **2025 대한민국 전통춤 축제**

• 해오름극장 | ☾ 달오름극장 | ● 하늘극장

12.4.(목) | 국립국악관현악단
• **정오의 음악회**

12.11.(목)–12.14.(일) | 국립극장 기획
• 무장애공연
공생, 원

12.17.(수)–12.18.(목) | 국립무용단
• **거장의 숨결 I: 배정혜, 국수호**

12.20.(토)–12.21.(일) **거장의 숨결 II: 김현자, 조홍동**

12.19.(금)–12.20.(토) | 국립창극단
송년판소리

12.24.(수) | 국립국악관현악단
• **2025 원터 콘서트**

12.26.(금) | 국립국악관현악단
• 2025 청년교육단원 결과 발표회
청풍국악(青風國樂)

25.12.27.(토)–26.3.1.(일) | (주)나인스토리
더 드레서

12.31.(수) | 국립창극단
• **송년음악회-어질더질**

2025 Programs

11.6.(목)–11.9.(일) | 국립무용단
2025 안무가 프로젝트

11.6.(목)–11.9.(일) | 앰비규어스댄스컴퍼니
• **더 벨트**

11.8.(토)–11.9.(일) | 국립현대무용단
• **더블 빌: 김성용 & 윌리엄 포사이스**

11.11.(화) | 국립합창단
• **한국 가곡의 모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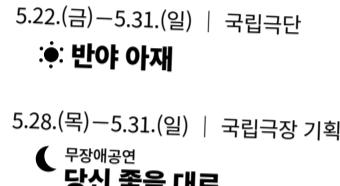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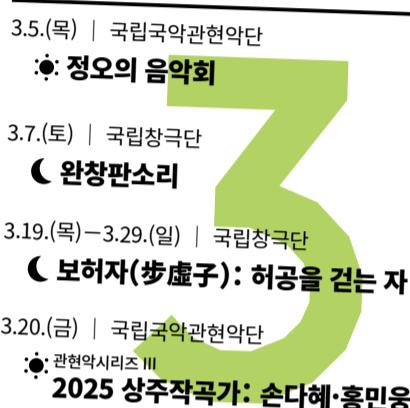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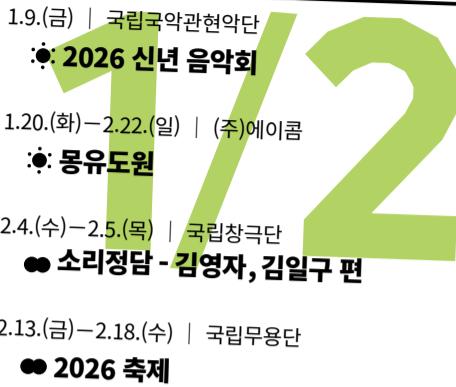
11.13.(목) | 국립국악관현악단
• **정오의 음악회**

11.15.(토) | 국립창극단
완창판소리

11.21.(금)–11.29.(토) | 국립창극단
이날치傳

11.21.(금)–11.30.(일) | 국립극단
• **조씨고아, 복수의 씨앗**

25.11.28.(금)–26.1.31.(토) | 국립극장 기획
• 마당놀이
홍길동이 온다



2026
Programs

국립창극단

National Changgeuk Company of Korea

공연명을 클릭하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심청

창극콘서트

토선생, 용궁가다

2025 창극 작가 프로젝트 시연회

이날치傳

송년음악회-어질더질

6	소리정담 - 김영자, 김일구 편	11
7	보허자(步虛子): 허공을 걷는 자	12
8	절창VI	13
9	효명	14
10	완창판소리	15

심청

Pansori Theater Shim Cheong



2025.9.3.(수) - 2025.9.6.(토)

수·목·금 19:30 토 15:00

170분 (휴식 20분 포함)

VIP 80,000원

R 60,000원

S 40,000원

A 20,000원

중학생 이상 (2012년 12월 31일 이전)

연출·극본 | 요나 김

작창·음악감독 | 한승석

전통을 디딤돌 삼아 경계를 넘어서는 국립창극단의 새로운 도전! 이번 시즌의 문을 여는 신작 〈심청〉은 지금 이 시대,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할 목소리를 전한다. 판소리 ‘심청가’가 효와 희생을 노래했다면, 이번엔 작품 속 심청은 사회 속 약자를 대변하는 존재로 다시 태어난다. 오페라 전문지 오픈벨트가 선정한 ‘올해의 예술가’이자, 독일 최고 권위의 파우스트상에 노미네이트된 연출가 요나 김은 원작의 틀을 해체하고 현대적으로 재구성하는 레지테아터 기법을 통해 〈심청〉을 새롭게 설계했다. 시공을 초월한 파격적인 해석은 동시대 관객의 감각을 날카롭게 자극할 예정이다. 〈귀토〉 〈리어〉 등 다수의 작품에서 음악을 이끌어온 작창가 한승석은 이번에도 깊고 섬세한 음악 언어로 중심을 잡는다. 여기에 세계 유수 오페라 페스티벌에서 활동한 독일 무대팀이 합류해 시각적으로도 단단하고 혁신적인 무대를 예고한다.

A bold reinterpretation of a Korean classic! *Pansori Theater Shim Cheong* opens the new season with powerful relevance. Directed by Yona Kim, acclaimed in Europe's opera scene, the show reimagines the traditional tale through a contemporary vision. Her Shim Cheong is not bound by time or place. It is a sensory experience that speaks for now. With evocative music by Han Seung-seok, and cutting edge visuals from a German design team, *Pansori Theater Shim Cheong* blends classic and modern in a striking new theatrical language.

창극콘서트 토선생, 용궁가다

Changgeuk Concert

Mr. Rabbit's Journey to the Underwater Palace



2025.9.25.(목) - 2025.9.26.(금)

목·금 19:30

70분 (휴식 없음)

전석 20,000원

초등학생 이상 (2018년 12월 31일 이전)

연출·극본 | 유은선

작창 | 한승석

안무 | 김주연

음악감독 | 최영훈

출연 | 2025 청년교육단원

신개념 창극 콘서트〈토선생, 용궁가다〉가 국립극장 무대에 오른다.

판소리 '수궁가'를 바탕으로, 간을 구하러 용궁에 간 자라와 위기를 재치로 넘기는 토끼의 이야기를 70분으로 압축해 유쾌하게 풀어낸다. 대본과 연출은 국립창극단 예술감독 겸 단장 유은선이 맡아 원전의 해학과 풍자를 현대적으로 재구성했다. 올해 무대는 2025 청년교육단원들이 탄탄한 소리 기량과 개성 있는 전통 춤사위를 선보이며 무대를 더욱 풍성하게 만든다. 신명나는 연주와 독창·합창·안무가 조화를 이루며 전통과 새로움이 공존하는 판소리의 매력을 선사한다.

A concert-style changgeuk inspired by Sugung-ga takes the stage at National Theater of Korea. This 70 minute show humorously retells the story of a turtle sent to an undersea kingdom to fetch a rabbit's liver, and the clever rabbit who outsmarts danger. Directed and written by Artistic Director Yu Eun-sun, it is infused with wit and modern flair. Blending live music, vivid choreography, and the fresh energy of the 2025 Youth Pansori Singers, offers a joyful fusion of tradition and contemporary that highlights the playful side of pansori.

2025 창극 작가 프로젝트 시연회

2025 Changgeuk Playwright Project Showcase



2025
국립창극단
창극 작가 프로젝트

National Changgeuk
Company of Korea
PLAYWRIGHT
PROJECT

2025.9.27.(토) - 2025.9.28.(일)

토·일 15:00

115분 (휴식 15분 포함)

전석 20,000원

초등학생 이상 (2018년 12월 31일 이전)

멘토 | 고선웅 한승석

작가 | 김은선 오해인 허유지

작창 | 박정수 장서윤 유태평양

2022년부터 이어온 <작창가 프로젝트>의 바통을 잇는 국립창극단의 새 여정, <창극 작가 프로젝트>. 창극의 기반이 되는 탄탄한 극본 개발을 목표로 기획된 이번 프로젝트는 새로운 서사와 시선을 담은 창극 창작의 외연을 넓히기 위한 야심찬 시도다.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된 3인의 신진 작가는 <변강쇠 점 찍고 옹녀> <귀토> 등 국립창극단의 굵직한 레퍼토리를 써낸 고선웅 연출과 작창가 한승석의 멘토링 아래 창극 작가로서의 첫걸음을 내딛는다. 차세대 창극의 가능성 이들의 손끝에서 태동한다.

Following the success of the *Pansori Composer Project*, the National Changgeuk Company of Korea launches a new chapter: the *Changgeuk Playwright Project*. This initiative aims to expand the narrative scope of changgeuk by developing compelling original scripts. Three emerging writers, selected through an open call, begin their journey under the mentorship of Korea's leading director Koh Sun-woong and Pansori composer Han Seung-seok.

이날치傳

The Story of Lee Nal-chi



“우리 전통예술을 한 자리에 모은 ‘버라이어티 쇼’”
뉴시스

“조각보 같은 작품이다. 우리 전통문화들을 조각조각 모아 하나의 새로운 예술작품을 탄생시켰기 때문이다.”
서울신문

2025.11.21.(금) - 2025.11.29.(토)
화·수·목·금 19:30 토·일 15:00

160분 (휴식 15분 포함)

R 50,000원

S 35,000원

A 20,000원

초등학생 이상 (2018년 12월 31일 이전)

연출 | 정종임

극본 | 윤석미

작창 | 윤진철

작곡·음악감독 | 손다혜

날쌔게 줄을 타는 솜씨 덕에 ‘날치’라 불렸던 조선 후기 여덟 명창 중 하나, 이경숙의 삶을 바탕으로 상상력을 더해 풀어낸 팩션 창극 〈이날치傳〉. 초연 당시 전통연희와 판소리가 어우러진 유쾌한 무대로 호평을 받으며 객석점유율 99%라는 기록을 세운 화제작이 다시 무대에 오른다. 양반집 머슴으로 태어나 줄광대, 고수를 거쳐 조선 최고의 명창으로 우뚝 선 이날치의 파란만장한 삶을 다채로운 일화로 풀어낸다. 눈앞에서 펼쳐지는 아슬아슬한 줄타기 장면부터 판소리·고법·풍물놀이에 이르기까지, 전통예술의 진수가 흥겨운 놀이판을 완성한다.

The Story of Lee Nal-chi returns to the stage after a sensational premiere. Inspired by the life of Yi Gyeong-suk, one of Joseon's "eight great singers," the show blends a true story with fiction, charting his rise from servant to tightrope walker, drummer, and master pansori singer. With vibrant storytelling, tightrope acrobatics, pansori, and folk performance, the production celebrates the dynamic spirit of Korean traditional arts.

송년음악회-어질더질

The Closing-2025 Year End Concert



2025.12.31.(수) | 19:30

120분 (휴식 미정)

R 60,000원

S 40,000원

A 20,000원

초등학생 이상 (2018년 12월 31일 이전)

연출 | 정종임

작가 | 남화정

지휘·음악감독 | 한웅원

국립창극단을 아끼고 사랑해 준 관객을 위한 소리로 가득 찬 감사의 무대. 그간 국립창극단이 선보인 대표 레퍼토리 곡들을 엄선해 한 자리에 모은 갈라 콘서트를 선보인다. 창극 음악의 정수는 물론, 특유의 풍자와 해학 까지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다. 다채로운 분위기의 음악이 무대를 채우고, 배우들의 깊은 소리와 존재감이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우리 소리의 멋과 매력을 만끽하며 소중한 사람과 함께 한 해를 되돌아 보고, 희망 가득한 병오년 새해를 기원하는 뜻깊은 시간으로 초대한다.

The National Changgeuk Company of Korea invites audiences to a heartfelt year-end gala. This special performance brings together highlights from the company's most beloved repertoire, offering a vibrant blend of musical beauty, sharp wit, and traditional charm. With emotionally resonant vocals and colorful stage energy, the concert celebrates the artistry of changgeuk while reflecting on the past year and welcoming the new one with hope and gratitude.

소리정담 - 김영자, 김일구 편

Pansori Talk & Performance



2026.2.4.(수) - 2026.2.5.(목)

수·목 19:30

70분 (휴식 없음)

전석 20,000원

초등학생 이상 (2019년 12월 31일 이전)

해설·사회 | 유은선

출연 | 김영자 김일구

‘명인(名人)’이라 불리는 이들. 평생 한 길을 걸으며 전통 소리의 맥을 지켜온, 당대 최고의 소리꾼들이 무대 위에 모여 판소리의 깊은 내공을 전한다. 오랜 시간 전통을 지켜온 명인들의 단단한 소리는 삶의 흔적과 맞닿아 깊은 울림으로 다가온다. 여기에 명인의 예술 세계와 인생의 궤적을 함께 풀어보는 대담이 더해져, 단순한 공연을 넘어 전통 예술의 본질을 마주하는 특별한 시간이 된다. 소리로 삶을 증명해 온 이들이 들려주는 뜻깊은 시간을 함께할 무대가 될 것이다.

The National Changgeuk Company of Korea brings together legendary pansori singers who have devoted their lives to preserving the soul of Korean tradition. Their voices, honed over decades, resonate with depth and lived experience. Alongside intimate onstage conversations exploring each pansori singer's musical path, the performance offers more than just music. It becomes a powerful reflection on artistry, life, and the essence of tradition. A unique opportunity to witness the brilliance of Korea's living cultural treasures.

보허자(步虛子): 허공을 걷는 자

Boheoja-The One Who Paces the Void



2026.3.19.(목) - 2026.3.29.(일)

화·수·목·금 19:30 토·일 15:00

110분 (휴식 없음)

R 50,000원

S 35,000원

A 20,000원

초등학생 이상 (2019년 12월 31일 이전)

연출 | 김정

극본 | 배삼식

작창·음악감독 | 한승석

작곡 | 한승석 장서윤

계유정난 27년 후 역사의 어둠 속에서 마주한 살아남은 사람들의 이야기. 두 형제, 수양대군과 안평대군을 중심으로 안평의 딸 무심과 사랑하고 아꼈던 첨 대어향, 그리고 안견까지 주변 인물들에게 주목한다. 상상력을 덧입힌 섬세한 서사로 관객을 매혹시키며 초연 당시 전회차 전석 매진을 기록했다. 김정 연출의 감각적인 무대와, 배삼식 작가의 창극에 최적화된 밀도 있는 대사, 한승석 작창의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음악까지, 완벽한 삼박자가 안평이 꿈꾸었던 무릉도원의 세계를 다시 펼쳐낸다. 존재조차 지워진 채 살아가는 인물들이 꿈처럼 모여 그린 태평성대, 시대를 거슬러 상처받은 마음에 전하는 감동적인 위로와 치유의 시간을 선사한다.

Set 27 years after the political purge known as the Gyeyujeongnan, this compelling changgeuk delves into the forgotten lives of those left in the shadows of history. Centering on the two royal brothers, Prince Suyang and Anpyeong, it brings new depth by focusing on the people surrounding them: Anpyeong's daughter Moosim, his beloved concubine Dae-Eohyang, and the famed painter An Kyon. With an imaginative and delicate narrative, the show captivated audiences, selling out every show during its premiere run. Directed by Kim Jeong, with a richly poetic script by Pai Samshik tailored to the changgeuk form, and music by Han Seung-seok blending tradition and modernity, the work vividly reimagines Prince Anpyeong's dream of utopia. It is a moving tale of wounded souls gathering like a dream to paint a vision of peace a deeply emotional offering of solace and healing across time.

절창VI

Peerless Pansori VI



©Joonyeol

2026.4.24.(금) - 2026.4.25.(토)

금 19:30 토 15:00

100분 (휴식 없음)

R 40,000원

S 30,000원

초등학생 이상 (2019년 12월 31일 이전)

소리꾼 | 최호성 김우정

연출 | 남인우

‘절창(絶唱)’. 아주 뛰어난 소리를 뜻하는 이 말처럼, 판소리의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는 국립창극단의 프로젝트가 2026년에도 이어진다. 2021년 시작 이래 매년 신선한 시도로 관객의 기대를 뛰어넘어온 ‘절창’ 시리즈, 그 여섯 번째 무대의 주인공은 최호성과 김우정. 유쾌한 연기와 탄탄한 소리로 다채로운 캐릭터를 빚어낸 최호성과 맑고 섬세한 음색으로 무대를 사로잡아 온 김우정이 한 무대에 선다. 전통과 젊은 감각이 어우러진 무대 위, 두 소리꾼의 재기 넘치는 호흡이 판소리의 지금을 더욱 생동감 있게 보여준다. 가장 젊고 가장 흥겨운 판소리 무대를 원한다면, 이번 〈절창VI〉을 절대 놓치지 말자.

The *Peerless Pansori* series, launched in 2021 by the National Changgeuk Company of Korea, returns in 2026 with its sixth stage. This year spotlights Choi Ho-seong, known for his dynamic characters and comic flair, and Kim Woo-jeong, whose clear, delicate vocals captivate audiences. Together, they bring youthful energy and inventive spirit to the tradition of pansori, creating a stage that's as vibrant as it is masterful. For those seeking the freshest and most playful expression of Korean vocal art, this show is not to be missed.

효명

Hyomyeong: The Prince of Art



2026.6.23.(화) - 2026.6.28.(일)

화·수·목·금 19:30 토·일 15:00

120분 (휴식 15분 포함)

VIP 80,000원

R 60,000원

S 40,000원

A 20,000원

초등학생 이상 (2019년 12월 31일 이전)

연출 | 임지민

극본 | 이만희 유은선 임지민

작창 | 유태평양

조선 제23대 왕 순조의 아들이자, 궁중무용 정재를 집대성한 인물—효명 세자의 이야기가 창극으로 펼쳐진다. 열여덟 어린 나이에 대리청정을 시작한 그는 예술과 정치로 세도정치에 맞섰고, 문예군주로서 왕권의 품격을 높이고자 했다. 다양한 궁중 연향과 무용을 주도하며 예술로 시대를 움직인 효명의 삶을 따라가다 보면, 조선 궁중무용의 찬란한 절정을 만날 수 있다. 국립창극단은 화려하고 품격 있는 궁중무용과 함께 인간 효명의 내면을 창극 배우들의 소리와 연기로 섬세하게 풀어낸다. 정재의 역사적 가치가 창극과 만나 전통의 깊이를 새롭게 빛어낸다.

Prince Hyomyeong, the son of King Sunjo and a visionary of court arts, comes to life by the National Changgeuk Company of Korea. At just 18, he ruled as regent and used court dance and ritual performance to assert royal dignity and counter political corruption. This richly imagined work weaves together the elegance of Joseon's court dances with emotionally layered storytelling, revealing both the grandeur of tradition and the depth of a young prince who led with both wisdom and art.

완창판소리

The Complete Performance of Pansori



2025.9.27. | 10.11. | 11.15.(토),
12.19.(금)-20.(토) *송년판소리
금 19:30 *송년판소리 토 15:00

전석 20,000원
송년판소리 30,000원

초등학생 이상 (2018년 12월 31일 이전)

해설·사회 유은선
명창 이난초 지선화 민은경

2026.3.7. | 4.11. | 5.9. | 6.6.(토)
토 15:00

전석 20,000원

초등학생 이상 (2019년 12월 31일 이전)

해설·사회 | 성기련
명창 | 박애리 왕기석 김미진 박성희

판소리 다섯 바탕, 그 긴 여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는 국립극장 〈완창판소리〉. 1984년 시작된 이래 소리꾼과 고수가 오롯이 북장단 하나에 의지해 이어온 시간은 그 자체로 우리 소리의 역사다. 하루에 몇 시간씩, 숨 한 번 고르기 어려운 긴 대목들을 완창한다는 건 소리꾼에게도, 자리를 지키는 관객에게도 잊을 수 없는 도전이자 경의다. 2025년 하반기에는 이난초, 지선화, 민은경 명창이, 2026년 상반기에는 박애리, 왕기석, 김미진, 박성희 명창이 무대에 오른다. 2025년 〈송년판소리〉에서는 완창 40주년을 기념해 그간의 여정을 함께 되돌아보는 뜻깊은 무대도 마련된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완창의 숨결을 지금, 이 자리에서 만나보자.

Since 1984, the National Theater of Korea's *Complete Performance of Pansori* series has honored the full-length performance of Korea's five traditional pansori epics. Relying solely on voice and drum, each performance spans hours. An unforgettable feat of endurance and artistry for both singer and audience. Lee Nan-cho, Ji Sun-hwa, Min Eun-kyung will perform in 2025 and Park Ae-ri, Wang Ki-seok, Kim Mi-jin, Park Sung-hee will perform in 2026. The year-end edition will commemorate the series' 40th anniversary, celebrating its legacy as a bridge between past, present, and future in Pansori tradition.

국립무용단

National Dance Company of Korea

공연명을 클릭하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사자(死者)의 서(書)

2025 안무가 프로젝트

거장의 숨결

2026 축제

17 귀향(歸鄉)

18 몽유도원무

19 탈바꿈

20

21

22

23

사자(死者)의 서(書)

Book of the Dead



2025.9.17.(수) - 2025.9.20.(토)

수·목·금 19:30 토 15:00

65분 (휴식 없음)

VIP 70,000원

R 50,000원

S 30,000원

A 20,000원

초등학생 이상 (2018년 12월 31일 이전)

안무 | 김종덕

작곡·음악감독 | 김재덕 황진아

무대디자인 | 이태섭

의상디자인 | 노현주

죽은 자가 다시 걷는 길, 그 49일의 여정을 춤으로 풀어낸 국립무용단의 〈사자(死者)의 서(書)〉가 다시 무대에 오른다. 2024년 초연 당시 ‘지적이고 감각적인 춤의 경전’이라는 호평을 받은 이 작품은 『티베트 사자의 서』를 모티브 삼아 삶과 죽음, 이승과 저승의 경계를 사유한다. 남겨진 자의 슬픔과 떠나는 자의 미련,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하는 위로의 몸짓은 전통과 현대의 경계를 넘나들며 다채로운 감정을 춤으로 풀어낸다. 삶의 끝자락에서 다시 한 번 오늘을 돌아보게 하는 이 작품은 우리가 언젠가 마주할 그 여정 앞에서 묻는다. ‘당신은, 어떻게 살아왔는가?’

Returning to the stage after its acclaimed 2024 premiere, *Book of the Dead* by the National Dance Company of Korea is a powerful reflection on the 49-day journey of the soul after death. Inspired by the Tibetan Bardo Thodol, the work explores the liminal space between life and death through intellectually charged, emotionally resonant choreography. With gestures of grief, longing, and final farewell, the piece traverses tradition and modernity, ultimately asking: When your journey ends, how will you have lived?

2025 안무가 프로젝트

NDCK Project 2025



2025.11.6.(목) - 2025.11.9.(일)

목·금 19:30 토·일 15:00

110분 (휴식 없음)

R 40,000원

S 30,000원

초등학생 이상 (2018년 12월 31일 이전)

안무 | 정소연 이지현 박수윤

출연 | 2025 국립무용단

청년교육단원 및 객원 무용수

한국무용의 내일을 밝히는 춤판이 열린다. 국립무용단이 주목한 세 명의 안무가 정소연, 이지현, 박수윤이 저마다의 색과 언어로 30분씩 무대를 채운다. 정소연은 AI와의 소통이 불안을 해석하고 위로하는 새로운 의례가 될지 모른다는 상상으로 시대의 감정을 어루만지며, 이지현은 옷과 옷걸이의 상징을 빌려 자아와 사회의 간극을 날카롭게 드러낸다. 박수윤은 죽음을 찬란한 이별의 축제로 바라보며, 춤으로 삶의 마지막을 되새긴다. 각기 다른 시선이 만든 세 편의 춤은 짧지만, 밀도 높은 여운을 남긴다. 새로운 상상력과 뜨거운 에너지가 공존하는, 이 시대에 한국무용이 가장 생생하게 숨 쉬는 무대다.

The future of Korean dance unfolds in this bold triple bill by the National Dance Company of Korea. Choreographers Jung So-yeon, Lee Ji-hyun, and Park Soo-yoon each present a 30-minute work infused with distinct vision and emotional depth. From spirit-channeling rituals and the tension between self and society, to a radiant farewell to death, these works offer poetic reflections on life today. Visually striking and conceptually rich, the performance captures contemporary Korean dance at its most vibrant and daring.

거장의 숨결

Living Legacy



2025.12.17.(수)-18.(목) | 19:30

〈거장의 숨결 I : 배정혜, 국수호〉

2025.12.20.(토)-21.(일) | 17:00

〈거장의 숨결 II : 김현자, 조흥동〉

100분 (휴식 있음)

VIP 70,000원

R 50,000원

S 30,000원

A 20,000원

초등학생 이상 (2018년 12월 31일 이전)

안무 | 조흥동 배정혜 김현자 국수호

〈국립무용단 발전방안 심포지엄〉

12월 19일(금) 15:00

국립극장 별별실감극장

참가비 : 무료

한국무용의 오늘을 만든 네 명의 거장, 조흥동, 배정혜, 김현자, 국수호. 한 시대를 이끈 이들의 대표작이 국립무용단 무용수들의 몸을 통해 되살아난다. 한국 창작춤의 지평을 연 배정혜의 *<ソル, 해바라기>*, 동양적 미학으로 무용극의 새 길을 연 국수호의 *<티벳의 하늘>*, 고운 선율처럼 여성 춤의 우아함을 빛어낸 김현자의 *<매화를 바라보다>*, 한국 남성춤의 정수를 담은 조흥동의 *<바람의 시간>*까지 각기 다른 미학과 철학이 무대 위에서 만나 시대의 품격을 증명한다. 오랜 시간 갈고닦은 춤의 깊이, 장인의 숨결이 살아 있는 이 특별한 무대는 지금 우리가 만나야 할 한국무용의 원형이자 정수다.

Four legendary figures in Korean dance, Cho Heung-dong, Bae Jeong-hye, Kim Hyun-ja, and Guk Su-ho bring their iconic works to life through the bodies of the National Dance Company of Korea. From Bae's groundbreaking *Soul, Sunflower* to Guk's *Tibetan Sky*, Kim's *Watching the Plum Blossom*, and Cho's *The Gallant*, these masterpieces showcase the depth, elegance, and philosophy of Korean dance. This special performance revives the essence and form of Korean dance, offering a rare opportunity to experience its timeless beauty and legacy.

2026 축제

Festival 2026



2026.2.13.(금) - 2026.2.18.(수)

금 19:30 토·일·화·수 15:00

60분 (휴식 없음)

전석 30,000원

초등학생 이상 (2019년 12월 31일 이전)

연출 | 김종덕

안무 | 채향순 박재순 장현수
정길만 박영애

국립무용단이 〈2026 축제〉로 2026년 병오년 새해의 문을 활짝 연다. 평균 객석점유율 99%를 기록하며 매년 명절이면 흥겨운 우리 춤으로 관객을 찾아온 ‘축제’ 시리즈. ‘신을 위한 축제’(2024), ‘왕을 위한 축제’(2025)에 이은 ‘백성을 위한 축제’(2026)는 민속적 정서를 바탕으로 넉넉하고 흥겨운 한 판을 만든다. 살풀이춤, 장고춤, 검무 등 누구에게나 익숙한 전통춤 작품이 무대와 객석의 경계를 허문 하늘극장에서 다채롭게 펼쳐진다. 온 가족이 함께 즐기며, 전통의 멋과 흥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한국춤을 경험하고 싶다면 놓쳐서는 안 될 무대다.

The National Dance Company of Korea opens the new year with *Festival*, the latest in its beloved holiday performance series. Following themes for the gods (2024) and kings (2025), this year's edition honors the people with vibrant traditional dances rooted in Korean folk culture. From *Salpuri* to *Janggu* and *Sword Dance*, eight iconic pieces fill the open-air Haneul Round Theater in a joyful, immersive celebration. Perfect for families and audiences of all ages, this festive showcase brings the rhythm, spirit, and beauty of Korean dance to life.

귀향(歸鄉)

Home



2026.4.23.(목) - 2026.4.26.(일)

목·금 19:30 토·일 15:00

70분 (휴식 없음)

VIP 70,000원

R 50,000원

S 30,000원

A 20,000원

초등학생 이상 (2019년 12월 31일 이전)

안무 | 김종덕

혈연의 울림, 세대를 잇는 온기, 그리고 몸짓으로 전하는 무언의 사랑을 담은 〈귀향(歸鄉)〉. 드라마적 서사를 춤으로 풀어내는데 탁월한 예술감독 김종덕의 두 번째 신작이다. 한국 춤의 미학과 정서를 바탕으로 현대적 해석을 더해 새로운 한국 춤의 서사를 그려낸다. 현대사회의 가족주의와 효의 개념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하며,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돌봄’에 대해 말한다. 어머니의 등은 굽었고, 아들의 발끝은 망설인다. 그리움은 먼저 울게 하고, 오래 기억한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눈부신 순간을 떠올리며 그곳으로 향하는 여정이 해오름극장 무대에서 시작한다.

Home, which contains the echo of blood ties, the warmth that connects generations, and the unspoken love conveyed through gestures. This is the second new work by Artistic Director Kim Jong-deok, who excels at expressing dramatic narratives through dance. Based on the aesthetics and emotions of Korean dance, it adds a modern interpretation to draw a new narrative of Korean dance. It reinterprets the concepts of familialism and filial piety in modern society with a modern sensibility, and talks about the ‘care’ that we need most now. The mother’s back is bent, and the son’s toes hesitate. Longing makes us cry first, and we remember for a long time. And, the journey to that place while recalling the dazzling moments of our lives begins on the grand stage.

몽유도원무

Mongyudowonmoo



2026.6.12.(금) - 2026.6.14.(일)

금 19:30 토·일 15:00

60분 (휴식 없음)

R 40,000원

S 30,000원

초등학생 이상 (2019년 12월 31일 이전)

안무·연출 | 차진엽

음악 | 하임 심은용

무대 | 이혜진

의상 | 최인숙

한 폭의 수묵화처럼, 춤으로 피워낸 상상의 낙원. 안무가 차진엽의 상상력이 안견의 걸작 ‘몽유도원도’를 만나 탄생한 <몽유도원무>가 다시 무대에 오른다. 현실의 고단함을 지나 상상의 세계로 향하는 여정을 그린 이 작품은, 굽이치는 움직임과 몽환적인 음악, 미디어아트와 섬세한 의상이 조화를 이루며 마치 그림 속을 거니는 듯한 몰입감을 선사한다. 2022년 초연, 2024년 재연을 거치며 뜨거운 반응을 얻은 국립무용단의 대표작. 이번 무대는 다시한번 우리를 도원(桃源)의 문 앞에 데려다 줄 것이다.

Choreographer Cha Jin-yeop's interpretation of An Gyeon's masterpiece 'Dream Journey to the Peach Blossom Land' is back on stage! This show depicts a journey from the hardships of reality to the world of imagination, and the harmonious combination of winding movements, dreamy music, media art, and delicate costumes creates an immersive experience as if walking through a painting. It received enthusiastic responses after its premiere in 2022 and its re-performance in 2024. This stage will once again take us to the gates of the Peach Blossom Land.

탈바꿈

Mask Off



2026.6.19.(금) - 2026.6.21.(일)

금 19:30 토·일 15:00

60분 (휴식 없음)

R 40,000원

S 30,000원

초등학생 이상 (2019년 12월 31일 이전)

안무 | 이재화

작곡·음악감독 | 박다율

의상 | 김지원

“탈을 쓰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뀐다.” 〈탈바꿈〉은 한국적인 것의 본질을 되묻고, 전통 탈춤 속 정신성과 움직임을 오늘의 감각으로 새롭게 불러내는 작품이다. 안무가 이재화는 단순히 탈춤의 재현을 넘어서, ‘탈을 쓴다’는 행위에 내재한 전환, 저항, 해방의 에너지를 탐색하고, 변화하는 존재로서의 인간을 춤으로 사유한다. 〈안무가 프로젝트〉(2024) 우수작 선정, 〈서울국제현대무용제(MODAFE)〉(2025) 초청된 이번 작품은 공연 시간을 확장하고 국립무용단 단원들이 새로이 합류해 무대의 밀도를 극대화한다.

Mask off is a work that questions the essence of “Koreanness” and renews the spirituality and movements of traditional mask dance with a contemporary sensibility. Choreographer Lee Jae-hwa goes beyond simply reproducing mask dance, exploring the energy of transition, resistance, and liberation inherent in the act of ‘wearing a mask’, and thinks about humans as changing beings through dance. This work, which was selected as an excellent work in the NDCK Project (2024) and invited to the International Modern Dance Festival (2025), expands the show time and maximizes the density of the stage by joining dancers from National Dance Company of Korea.

국립국악관현악단

National Orchestra of Korea

공연명을 클릭하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관현악시리즈 I 어쿠스틱

25 2026 신년 음악회 30

관현악시리즈 II

26 관현악시리즈III 31
2025 상주작곡가: 손다혜 · 홍민웅

2025 작곡가 프로젝트

27 어린이 음악회 신나락 만나락 32

국악가요

28 소년소녀를 위한 소소 음악회 33

2025 원터 콘서트

29 관현악시리즈IV 34
이병우와 국립국악관현악단

2025 국립국악관현악단
청년교육단원 결과 발표회
청풍국악(青風國樂)

30 인문학 콘서트 공존(Survive) 35

31 정오의 음악회 36

관현악시리즈 | 어쿠스틱

Acoustic



2025.8.23.(토) | 15:00

70분 (휴식 20분 포함)

R 40,000원

S 20,000원

초등학생 이상 (2018년 12월 31일 이전)

지휘 | 최수열

위촉작곡 | 박명훈

소리의 본질에 다가가는 국립국악관현악단의 도전. 〈어쿠스틱〉은 기술에 의존하지 않고, 국악기 고유의 음색과 조화를 순수하게 전달하고자 기획됐다. 연주자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부터 전문가 자문, 무대 위 실제 배치 실험까지 수개월에 걸쳐 이어진 깊은 고민이 응집된 무대다. 기존의 음향 세팅을 걷어내고, 해오름극장에 최적화된 국악관현악단의 새로운 소리 배치를 시도한다. 관객이 직접 평가한 음질에 대한 피드백은 공연 당일 대형 스크린을 통해 공유된다. 국악의 현재, 그리고 앞으로의 가능성을 향한 질문의 첫 번째 대답이 될 것이다.

A bold experiment in sound by the National Orchestra of Korea, strips away amplification to highlight the pure, resonant beauty of traditional instruments. Born from months of collaboration between musicians, acoustic experts, composers and conductors, the production reimagines orchestral placement for optimal acoustics in the Haeoreum Grand Theater. Audience feedback on sound quality, collected in real time, will be shared during the performance. By rethinking how we hear and feel Korean music, this concert offers a striking response to the question: What does the future of Korean orchestra sound like?

관현악시리즈Ⅱ 2025 작곡가 프로젝트

2025 Composer Project



2025.9.10.(수) | 19:30

100분 (휴식 20분 포함)

R 40,000원

S 20,000원

초등학생 이상 (2018년 12월 31일 이전)

지휘 | 김성국

위촉작곡 | 김여진 김지호 서민재

양동률 이한빈 전다빈

조성윤 하준영

국악관현악의 내일을 만들어갈 여덟 명의 젊은 작곡가들이 선보이는 패기 가득한 무대. 국립국악관현악단은 2025년 공개 모집을 통해 만 34세 이하 작곡가들을 선발하고, 약 6개월에 걸쳐 이들과 함께 호흡하며 창작의 전 과정을 함께했다. 상주작곡가 손다혜·홍민웅의 멘토링과 워크숍, 오케스트라 리딩, 시연회를 거쳐 완성된 10분 남짓의 작품마다 각기 다른 색과 결이 살아 숨 쉰다. 우리 음악의 미래를 책임질 김여진, 김지호, 서민재, 양동률, 이한빈, 전다빈, 조성윤, 하준영. 열정과 고민, 실험을 모두 품은 이 신선한 무대 위에서 국악관현악의 새로운 물결을 가장 먼저 만날 수 있다.

Eight emerging composers take center stage with bold new works that reflect the future of Korean orchestral music. Selected through a pen call in 2025, the composers, each under 34, collaborated with the Orchestra over six months. Guided by resident composers Son Da-hye and Hong Min-woong, their creative journey included workshops, orchestral readings, and rehearsals. The result: eight distinctive 10 minute compositions that showcase fresh perspectives, vibrant energy, and the evolving language of Korean traditional orchestral music.

국악가요

Modern Folk Song



2025.10.25.(토) | 15:00

70분 (휴식 없음)

전석 50,000원

초등학생 이상 (2018년 12월 31일 이전)

지휘·해설 | 채치성

노래 협연 | 강호중 이광복 이소연

전명신 주병선 홍승희

한때 거리마다 울려 퍼지던 멜로디, 모두가 따라 부르던 그 노래들.

1980년대를 풍미한 ‘국악가요’가 국립국악관현악단과 함께 오늘의 무대로 돌아온다. 장단과 가락에 대중성을 더해 사랑받았던 국악가요는, 이제 대규모 관현악 편성으로 다시 태어난다. 장르의 문을 연 김영동, 조광재 작곡가와 함께 슬기등의 일원으로 활동하며 국악가요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채치성 예술감독이 이번 무대를 이끈다. 익숙한 노래가 국악관현악과 만나 만들어낼 새로운 감성. 과거를 기억하는 이들에겐 반가운 추억의 귀환, 처음 만나는 이들에겐 신선한 음악의 발견이 될 시간. 잊고 있던 마음속 멜로디를 다시 불러보자.

Once beloved melodies that filled the streets return to the stage. Popular in the 1980s, Korean folk song comes alive again through a full orchestral arrangement by the National Orchestra of Korea. Led by Artistic Director Chae Chi-sung, a key figure in the genre's golden era, the program revisits classics by pioneering composers Kim Young-dong and Jo Gwang-jae. For some, it's a nostalgic revival. For others, a fresh musical discovery. Let those forgotten tunes resound once more.

2025 원터 콘서트

2025 Winter Concert



2025.12.24.(수) | 19:30

90분 (휴식 없음)

R 70,000원

S 50,000원

A 30,000원

초등학생 이상 (2018년 12월 31일 이전)

지휘 | 백윤학

협연 | 브랜든 쇤(색소폰)

이충주(뮤지컬 배우)

연주 | 국립국악관현악단

서울 페스타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매년 연말, 따뜻한 설렘을 안겨주었던 ‘원터 콘서트’가 2025년, 해오름 극장으로 무대를 옮겨 더 풍성해진 구성으로 돌아온다. 음악을 온몸으로 느끼는 ‘춤추는 지휘자’ 백윤학과 함께, 흥겨운 캐럴과 국악관현악 명곡, 그리고 색소포니스트 브랜든 쇤을 비롯한 특별한 게스트와의 협연까지, 전통과 현대를 넘나드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겨울밤을 수놓는다. 특히 동서양 악기가 어우러진 배합 편성 연주는 오직 이 무대에서만 만날 수 있는 진귀한 경험이 될 것이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가족과 친구, 연인에게 음악의 온기를 전하는 선물 같은 공연이다.

The beloved *Winter Concert* returns in 2025 with a grander program at the grand stage. Led by the dynamic conductor Baek Yoon-hak, known for his expressive, dance like conducting, this festive concert features lively carols, highlights from the National Orchestra of Korea’s repertoire, and special collaborations, including a guest appearance by saxophonist Brandon Jinwoo Choi. Blending traditional Korean and Western instruments, it offers a rare musical experience unique to this stage. A heartwarming celebration to share with loved ones as the year comes to a close.

2025 국립국악관현악단 청년교육단원 결과 발표회

청풍국악(青風國樂)

The Youth Wind



2025.12.26.(금) | 19:30

80분 (휴식 20분 포함)

전석 20,000원

초등학생 이상 (2018년 12월 31일 이전)

지휘 | 최동호

협연 | 박범훈 (피리)

우리 음악의 내일을 이끌어 갈 청년 연주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국립국악관현악단은 2025년 한 해 동안 청년교육단원 45명과 함께 워크숍, 실연, 다양한 무대를 통해 성장을 이어왔다. 2025 청년교육단원 결과 발표회 〈청풍국악(青風國樂)〉은 그 여정의 마지막이자 새로운 시작점이다. 각자의 음악적 색깔과 가능성을 무대 위에 펼쳐 보이며, 그간 갈고닦은 실력을 오롯이 드러낸다. 관객은 이들의 눈빛과 소리에서 국악의 미래를 엿볼 수 있고, 연주자에게는 지난 노력을 담은 무대로 기억될 귀한 무대다. 무르익은 꿈과 패기, 음악에 대한 진심이 깃든 순간을 함께하며 뜨거운 응원을 보내보자.

Forty-five young musicians who trained with the National Orchestra of Korea throughout 2025 take the stage for *The Youth Wind*, the final showcase of their year-long journey. Through workshops, rehearsals, and performances, they've grown in skill and artistry, now ready to share their passion. This concert is both a culmination and a new beginning, revealing each musician's unique sound and potential. For the audience, it offers a glimpse into the future of Korean music; for the musicians, it's a meaningful milestone, filled with heart, ambition, and the dreams they've nurtured on this path.

2026 신년 음악회

New Year's Concert



2026.1.9.(금) | 19:30

110분 (휴식 20분 포함)

R 50,000원

S 30,000원

A 20,000원

초등학생 이상 (2019년 12월 31일 이전)

지휘 | 박천지

협연 | 김영랑 (가야금)

전민경 (오보에)

김준수·추다혜 (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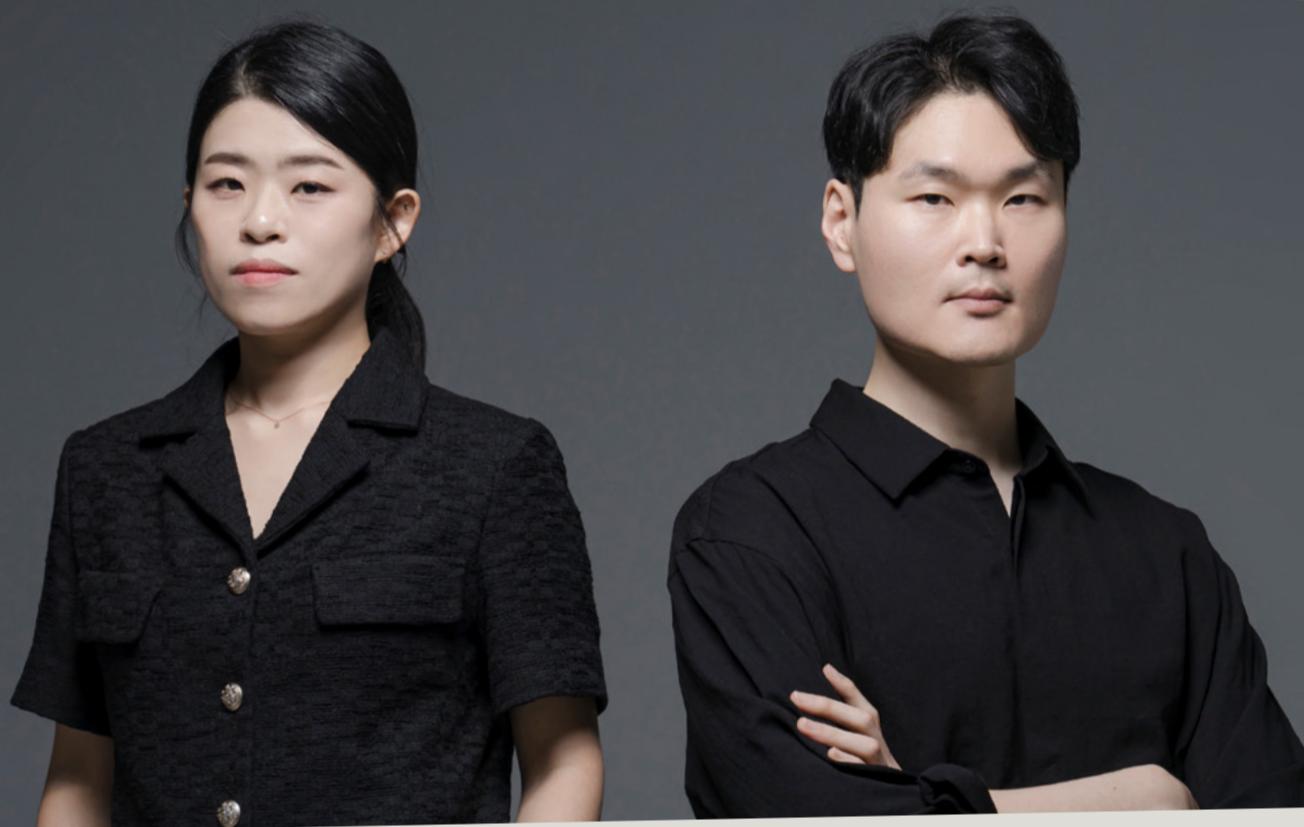
희망 가득한 새해의 문을 우리 음악으로 여는 〈신년 음악회〉. 2020년 첫선을 보인 이래 매해 매진을 이어가며 새해를 여는 대표 공연으로 자리 잡았다. 2026년 병오년, 붉은 말의 힘찬 기운을 담은 무대를 선보인다. 1부에서는 가야금 신동으로 이름을 알린 김영랑과 세련된 감각의 오보이스트 전민경이 함께해 깊이 있는 울림을 전하고, 2부에서는 국립창극단원 김준수와 서도 소리꾼 추다혜가 다채로운 협연 무대를 완성 한다. 지휘는 박천지가 맡아 국악관현악의 진수를 이끈다. 품격 있는 연주, 흥겨운 장단이 어우러져 새해를 시작하는 이들에게 힘찬 응원을 전할 것이다.

Ring in the new year with the *New Year's Concert* by the National Orchestra of Korea, a beloved tradition since 2020, known for selling out each year. For 2026, the concert captures the spirited energy of the Year of the Red Horse. Part 1 features gayageum prodigy Kim Young-rang and refined oboist Chun Min-kyung in a resonant, elegant program. In Part 2, Kim Jun-su from the National Changgeuk Company of Korea and Seodo sori artist Chu Da-hye join for vibrant collaborations. Conducted by Park Cheon-ji, the concert blends refined orchestration and festive rhythms, delivering a powerful message of hope for the year ahead.

관현악시리즈III

2025 상주작곡가: 손다혜·홍민웅

NOK Resident Composers Concert



2026.3.20.(금) | 19:30

100분 (휴식 20분 포함)

R 50,000원

S 30,000원

A 20,000원

초등학생 이상 (2019년 12월 31일 이전)

지휘 | 박상후

위촉작곡·작곡 | 손다혜 홍민웅

국립국악관현악단이 다시 한번 창작의 깊이를 더한다. 2016년에 도입한 '상주작곡가' 프로그램은 국악관현악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실험과 도전의 여정이었다. 2025년, 손다혜와 홍민웅 두 작곡가가 새로운 상주작곡가로 위촉돼 오랜 교류와 협업 끝에 완성한 음악을 무대에 올린다. 국립국악관현악단과의 유기적인 작업 과정을 통해 탄생한 신작은 물론, 두 작곡가의 음악 세계를 엿볼 수 있는 대표작도 함께 소개된다. 동시대 국악관현악의 흐름과 가능성 함께 확인할 수 있는 특별한 무대. 한국 창작 음악의 현재, 그리고 미래를 향한 발걸음에 함께해 보자.

The National Orchestra of Korea deepens its commitment to creation with its *Resident Composers Concert*. Since its launch in 2016, the program has been a platform for experimentation and innovation in Korean orchestral music. This year, composers Son Da-hye and Hong Min-woong present works developed through months of close collaboration with the orchestra. The concert features newly commissioned pieces alongside signature works that reflect each composer's artistic voice. It's a rare opportunity to experience the evolving landscape of contemporary Korean music and take part in a journey toward its creative future.

어린이 음악회 신나락 만나락

Finding Harmony, Finding Mama



2026.4.22.(수) - 2026.5.5.(화)

화·수·목·금 11:00 토·일 14:00

어린이날 11:00·15:00

60분 (휴식 없음)

전석 30,000원

36개월 이상

작 | 구도윤

연출·작창 | 박인혜

작곡·음악감독 | 이고운

미술감독 | 류지연

웰메이드 어린이 국악 공연으로 호평받은 <신나락 만나락>이 2026년 다시 찾아온다. ‘신과 인간이 만나 함께 즐거워한다’는 뜻을 품은 제주방언에서 이름을 딴 이번 공연은 제주 설화 ‘설문대할망’을 모티브로, 세상에서 유일하게 노래하는 아이 ‘선율’의 모험을 그린다. 엄마를 찾아 떠난 여정에서 다채로운 음악 세상과 친구들을 만나며 성장하는 선율의 이야기는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춘 흥미진진한 서사와 감각적인 무대로 펼쳐진다. 국립국악관현악단의 생생한 연주와 베테랑 창작진이 함께 만든 무대는 아이들에게는 첫 국악 공연으로, 어른들에게는 따뜻한 동심을 환기해줄 특별한 순간을 선물한다.

Praised as a well-made kids concert, *Finding Harmony, Finding Mama* returns in 2026. Taking its name from a Jeju dialect phrase meaning “joy shared between gods and humans,” the concert draws inspiration from the Jeju legend of Seolmundae Halmang. It follows a singing child named Seon-yul on a journey to find her mother. Along the way, she encounters magical worlds of sound and friendship. With a story tailored to young audiences, immersive visuals, and the vibrant live music of the National Orchestra of Korea, this heartwarming production offers children a joyful first encounter with Korean music, and rekindles childlike wonder in adults.

소년소녀를 위한 소소 음악회

Youth Concert



2026.5.14.(목) – 2026.5.16.(토)

목·금 11:00 토 15:00

70분 (휴식 없음)

전석 30,000원

초등학생 이상 (2019년 12월 31일 이전)

연출 | 이기쁨

지휘 | 장태평

작창·협연 | 판소리공장 바닥소리

소년소녀를 위한 국악 콘서트 〈소소 음악회〉. 웅장한 오케스트라 연주에 다채로운 영상, 화려한 조명이 어우러져 ‘국악 콘서트’라는 이름에 걸맞은 풍성한 볼거리와 들을 거리를 선사한다. 하루 동안 청소년들이 마주하는 감정들을 음악으로 풀어내는 이번 공연은 국악이 고루하다는 편견을 없애고, 흥미와 공감을 자연스럽게 이끌어낸다. 친구, 가족과 즐기기에 더없이 좋은 시간! 학교와 집을 오가는 평범한 일상이 흥미로운 국악 관현악과 함께 특별해진다.

Youth Concert blends grand orchestral sounds with dynamic visuals and dazzling lights, offering an engaging sensory experience true to the name “Korean music concert.” Centered on emotions teenagers face in a typical day, the performance breaks stereotypes that traditional music is dull, instead sparking curiosity and connection. Perfect for sharing with friends and family, this unique concert transforms the ordinary routine of school and home into something extraordinary through the vibrant sounds of the National Orchestra of Korea.

관현악시리즈IV 이병우와 국립국악관현악단

Lee Byeongwoo with NOK



2026.6.5.(금) | 19:30

90분 (휴식 없음)

R 50,000원

S 30,000원

A 20,000원

초등학생 이상 (2019년 12월 31일 이전)

위촉작곡·기타협연 | 이병우

지휘 | 김유원

대한민국 대표 기타리스트이자 수많은 영화음악 명곡을 탄생시킨 이병우와 국립국악관현악단이 함께 완성하는 무대. 클래식과 한국적 정서를 아우르는 서정적인 멜로디로 대중성과 예술성을 모두 인정받아 온 이병우는 이번 공연에서 영화 <왕의 남자> <관상> <스캔들-조선남녀상열지사> 등 그의 영화음악 대표작을 국악관현악으로 새롭게 풀어낸다. 여기에 국립국악관현악단을 위해 직접 작곡한 신작까지 더해지며 기대감을 높인다. 기타와 국악의 만남, 그리고 이병우 특유의 감성이 더해진 이번 무대는 아름다운 음악적 풍경을 선사할 것이다. 익숙한 영화 속 선율이 전통 악기와 만나 어떻게 다시 태어날지, 그 특별한 순간을 함께 해 보자.

A leading guitarist and celebrated film composer, Lee Byeong woo joins forces with the National Orchestra of Korea for a stage filled with lyrical beauty. Known for blending classical and Korean sentiment, Lee reimagines iconic scores from *The King and the Clown*, *The Face Reader*, and *Untold Scandal* through the lens of Korean orchestral music. The program also features a brand new composition created especially for the orchestra. This rare encounter between guitar and traditional instruments, infused with Lee's signature sensitivity, promises a deeply evocative experience, where beloved film melodies are reborn in a new musical landscape.

인문학 콘서트 공존(Survive)

Survive



2026.6.26.(금) | 19:30

70분 (휴식 미정)

R 40,000원

S 20,000원

초등학생 이상 (2019년 12월 31일 이전)

지휘 | 정예지

AI 작곡 협업 | (주)포자랩스

기술이 창작의 경계를 넘나드는 시대, 인간과 인공지능의 공존 가능성을 묻는 실험적인 무대를 준비했다. <공존(Survive)>은 AI가 만들어낸 음악을 단순히 연주하는 차원을 넘어, 창작의 주체로서 인간과 기술이 어떻게 함께할 수 있을지를 탐구한다. 과연 창작은 인간만의 영역일까?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인간은 어떻게 예술을 지켜내고, 또 새롭게 진화시킬 수 있을까? 이번 공연은 하나의 해답보다는 수많은 질문을 던진다. AI와 인간이 함께 만들어낸 음악은 감탄과 의문을 동시에 불러일으키고, 관객은 그 안에서 자신만의 생각을 길어 올릴 수 있다. 기술과 예술의 경계에서, 지금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 생생하지만 반드시 마주해야 할 오늘의 이야기다.

In an age where technology blurs the boundaries of creation, *Survive* is an experimental stage work that questions the possibility of coexistence between humans and artificial intelligence. This concert goes beyond simply playing AI generated music, it explores how humans and machines might collaborate as co-creators. Is creativity solely a human domain? How can art survive, or even evolve, amid rapid change? Rather than offering clear answers, *Survive* presents a space for reflection. The music, born of both human and AI minds, invites awe and introspection, urging us to consider what truly matters at the intersection of technology and art.

정오의 음악회

Midday Concert



2025.10.2. | 11.13. | 12.4.(목)

2026.3.5. | 4.9. | 5.7.(목)

목 11:00

70분 (휴식 없음)

R 30,000원

S 20,000원

초등학생 이상 (2019년 12월 31일 이전)

지휘 | 최동호

해설 | 이금희

국악의 품격과 일상의 여유가 만나는 시간! 국립국악관현악단 브런치 콘서트 〈정오의 음악회〉는 2009년 시작된 이래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이어온 국립극장의 시그니처 공연이다. 부지휘자 최동호의 지휘 아래 60여 명의 연주자가 만들어내는 웅장한 사운드, 대한민국 대표 아나운서 이금희의 섬세한 해설, 그리고 남산 자락의 풍경과 어우러진 소소한 간식까지! 클래식한 감성과 현대적 감각이 조화를 이루는 이 무대는 매달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국악 입문자도 가볍게 빠져들 수 있는 특별한 예술 경험을 선사한다. 햇살처럼 따뜻한 국악의 한낮, 정오가 기다려지는 이유다.

A perfect blend of elegance and everyday delight, *Midday Concert*, the National Orchestra of Korea's beloved brunch series, has been a monthly staple at the National Theater of Korea since 2009. Conducted by Associate Conductor Choi Dong-ho, with narration by renowned announcer Lee Geum-hee, the concert features over 60 musicians delivering a rich orchestral sound. Paired with light refreshments and views of Namsan, each performance offers a fresh program that warmly welcomes newcomers to Korean music. A midday experience where tradition meets modernity, and noon becomes the most anticipated hour of the day.

국립극장 기획

National Theater of Korea's Production

공연명을 클릭하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다정히 세상을 누리면

38

종이꽃밭: 두할망본풀이

39

죽림애전기

40

정수정전

41

망한가(望恨歌)

42

노가쿠: 노와 교겐

43

2025 대한민국 전통춤 축제

44

마당놀이 홍길동이 온다

45

공생,원

46

2026 함께, 봄

47

당신 좋을 대로

48

다정히 세상을 누리면

Through Tender Eyes



2025.9.4.(목) - 2025.9.7.(일)

목·금 19:30 토·일 15:00

100분 (휴식 없음)

R 40,000원

S 30,000원

초등학생 이상 (2018년 12월 31일 이전)

연출 | 민준호

극본 | 오인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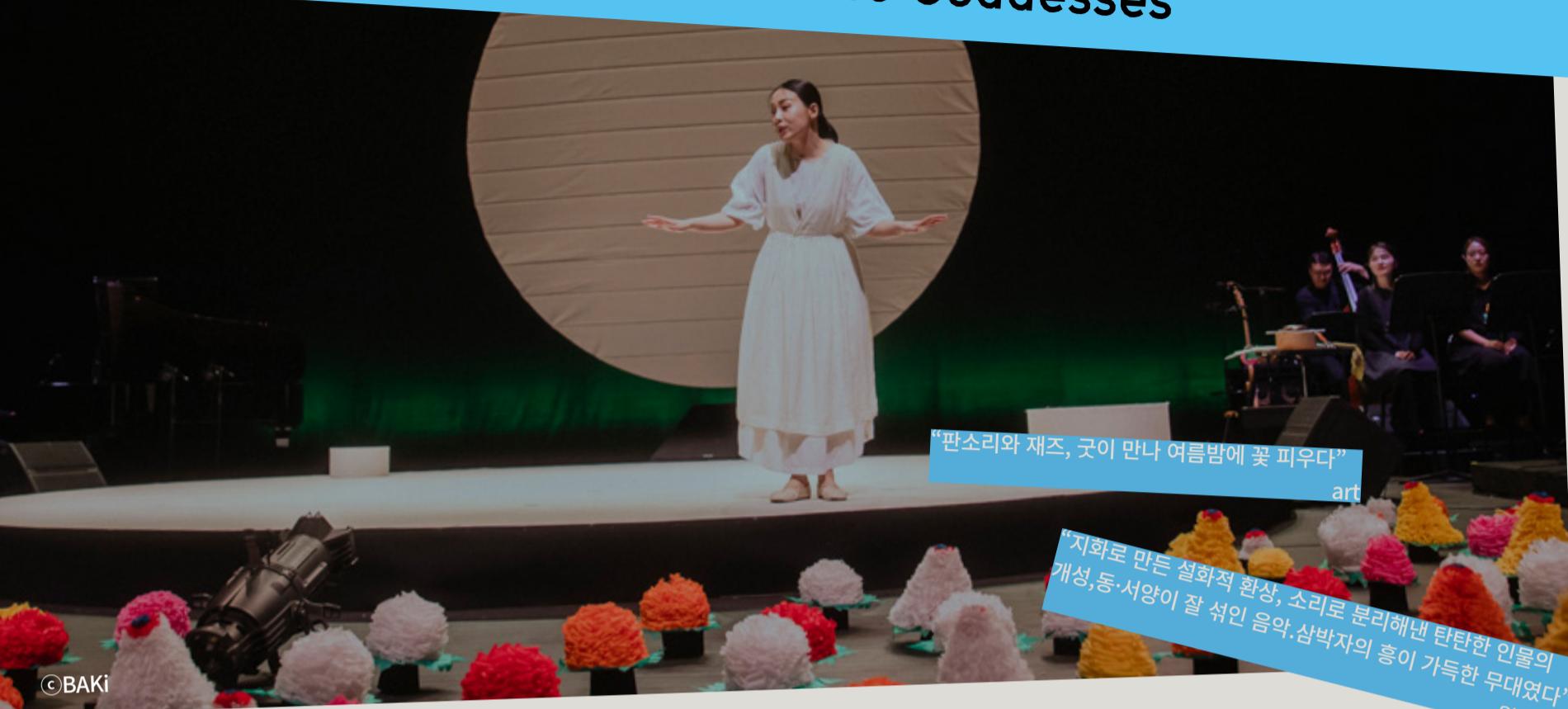
작곡 | 손다혜 정종임

조선 말, 전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펼쳐지는 음악극 〈다정히 세상을 누리면〉. 작품은 차별과 불평등이 일상이던 시대를 이룸 없는 한 마리 강아지의 눈을 통해 바라본다. 몰락한 양반 홍경래와 서자 출신 우군칙이 반란을 모의하고, 노비 신분의 먹쇠는 딸 삼월에게 더 나은 세상을 물려주기 위해 뜻을 함께한다. 평등을 외친 그들 안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또 다른 차별의 그림자. 반려동물이라는 개념조차 없던 시대, 존재조차 작고 미미했던 한 생명의 시선을 통해 드러나는 사회의 모순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다. 시대를 뛰어넘는 묵직한 울림, 따뜻하면서도 날카로운 시선이 어우러져 관객의 마음을 조용히 흔든다.

Set during the turmoil of late Joseon, the show unfolds through the eyes of a nameless dog. As fallen noble Hong Gyeong-nae and outcast U Gun-chik plan a revolt, a servant named Meoksoe joins them for the future of his daughter. Yet, shadows of discrimination remain among those who cry for equality. This poignant music drama exposes the contradictions of the past and present through the smallest of lives, resonating with quiet but powerful emotion.

종이꽃밭: 두할망본풀이

Tale of Two Goddesses



2025.9.6.(토) - 2025.9.7.(일)

토 19:30 일 15:00

70분 (휴식 없음)

전석 20,000원

초등학생 이상 (2018년 12월 31일 이전)

극본·연출·작창 | 박인혜

작곡·편곡·음악감독 | 최인환

지화작가 | 정연락

자문 | 서순실 심방

다시 돌아온 판소리극 〈종이꽃밭: 두할망본풀이〉. 제주 무속신화 『생불할망본풀이』를 바탕으로, 아기를 점지하고 돌보는 여신 ‘생불할망(삼신할미)’의 탄생 여정을 판소리로 풀어낸 작품이다. 2023년 국립극장 여우락 페스티벌 초연 당시 감각적인 연출과 깊이 있는 메시지로 큰 주목을 받았던 이 무대가 한층 더 깊어진 호흡과 구성으로 관객을 다시 만난다. 개인의 고립과 상실, 그 안에서 피어나는 사랑과 연대의 이야기가 종이꽃처럼 섬세하고도 강인하게 펼쳐진다. 동해안 별신굿 전통 지화(紙花)의 미학, 제주 민요와 무가, 판소리와 재즈의 경계를 넘나드는 음악까지! 소리와 몸짓, 빛과 색이 어우러지는 이번 공연은 지금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축제’가 될 것이다.

Tale of Two Goddesses returns with deeper resonance and a more refined form. Inspired by the Jeju shamanic myth Saengbul-halmang Bonpuri, it tells the origin story of the goddess who grants and protects life. First premiered at the 2023 Yeowoorak Festival, the piece blends Pansori and jazz, Jeju folk songs and rituals, and the delicate artistry of traditional paper flowers. A moving story of isolation, loss, love, and solidarity unfolds – fragile yet powerful – like paper blossoms in bloom. *Tale of Two Goddesses* stands as a vivid reminder and a celebration of the beauty of life and the strength of human connection.

죽림애전기

Love in the Bamboo Grove



“정통과 실험의 절묘한 조화,
전통예술의 새 가능성을 보여주는 무대”
싱다오타우

“3시간 반의 러닝타임에도 불구하고,
관객은 단 1분도 지루함을 느끼지 않았다”
문화보

Design: Acorn Design Ltd.
Calligraphy: Allen Hong
Photography: Lawrence
Ng@Workhouse

2025.9.12.(금) - 2025.9.13.(토)

금 19:30 토 15:00

200분 (휴식 15분 포함)

전석 30,000원

초등학생 이상 (2018년 12월 31일 이전)

기획·제작 | 홍콩 아츠 페스티벌

극작가 | 레이몬드 토 콕 와이

연출 | 순 킴롱

코디네이터 및 주연 | 람 틴우

광동 오페라의 새로운 물결이 서울을 찾는다! <죽림애전기>는 2023년 홍콩 아츠 페스티벌의 의뢰로 제작되어 비평가들의 호평을 받은 작품으로, 이번 축제를 통해 국내에 첫선을 보인다. 극작은 홍콩 시나리오 작가 조합상을 수상한 레이몬드 토 콕 와이, 출연진은 차세대 광동 오페라 스타들로 채워졌다. 위나라 말기에서 진나라 초기를 배경으로, 죽림칠현 후손들의 사랑, 용기, 회복의 삶을 섬세하게 그려낸다. 관객들은 무예의정수, 서정적 우아함, 긴장감 넘치는 드라마가 어우러져 광동 오페라 특유의 미학과 깊이를 온몸으로 느끼는 시간이 될 것이다.

A new wave of Cantonese opera arrives in Seoul!
Commissioned by the Hong Kong Arts Festival in 2023 and praised by critics, the extremely popular show makes its Korean debut. Written by award-winning screenwriter Raymond To Kwok-wai and performed by a new generation of prominent Cantonese opera stars, this story about love, courage and resilience follows the lives of descendants of the legendary Seven Sages of the Bamboo Grove of the Wei and Jin dynasties. Audiences will be captivated by a stunning fusion of martial arts mastery, lyrical elegance, and gripping drama.

정수정전

The Tale of Jeong Su-jeong



©최근우

“용기 있게 세상과 맞서 싸우는 한 여자를 그렸다”
국악신문

2025.9.13.(토) - 2025.9.14.(일)

토 19:30 일 15:00

90분 (휴식 없음)

전석 20,000원

초등학생 이상 (2018년 12월 31일 이전)

연출·음악감독 | 정종임

작가 | 이가현

작창감독 | 송보라

작곡·편곡 | 손다혜 최민성 공미연

잊혀진 고전에서 되살아난 여성 영웅의 이야기 <정수정전>.

조선 말, 작자 미상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판소리와 민요를 통해 다채로운 캐릭터와 서사를 엮어냈다. 이가현 작가는 아버지와의 관계를 확장하여, 시대를 앞서간 여성 영웅의 복합적인 내면을 입체적으로 조명한다. 그녀가 겪는 혼란과 선택의 순간이 깊은 울림으로 다가오며, 관객들에게 자기 삶을 돌아보게 하는 거울이 된다. 전통의 울림 속에서 지금, 정수정의 이야기가 다시 시작된다.

A forgotten classic returns with *The Tale of Jeong Su-Jeong*, the story of a pioneering female hero from the late Joseon era. Based on an anonymous novel of the same name, this work weaves together pansori and folk songs to create a rich tapestry of characters and narrative. Playwright Lee Ga-hyun expands the heroine's relationship with her father, offering a layered portrayal of her inner struggles and bold choices. Her emotional journey resonates deeply, inviting audiences to reflect on their own lives. In the echoes of tradition, Jeong Su-jeong's story begins anew — urgent, powerful, and relevant today.

망한가(望恨歌) Manghangga



“과거의 고통을 직면하고 전통예술을
통해 화해를 모색하는 시도”
도쿄 예술위원회

©熊谷香織

2025.9.17.(수) - 2025.9.18.(목)

수·목 19:30

120분 (휴식 없음)

전석 20,000원

초등학생 이상 (2018년 12월 31일 이전)

노가쿠 연출·주연 | 시미즈 간지

농악 | 망한가농악단

〈망한가〉는 일본의 전통극 노가쿠와 한국의 농악이 만난 특별한 협업 작품이다. 1993년, 일본 면역학자 타다 토미오가 한국인 징용자의 아내를 인터뷰한 다큐멘터리에서 영감을 받아 창작한 노 작품으로, 전쟁과 폭력 속에 스러진 생명들을 기리는 이야기다. 백제가요 『정읍사』의 시어를 빌려 시대를 초월한 위로와 성찰의 메시지를 전하며, 노 특유의 절제된 표현이 역사적 고통의 무게를 묵직하게 전달한다. 여기에 한국 농악의 역동적인 에너지가 더해지며 억눌린 감정을 깨우고, 아픈 기억 너머 ‘함께 살아가는 길’을 모색하는 무대로 완성된다. 장르와 국경을 넘어선 위로의 무대, 그 감동을 함께 느껴보자.

Manghangga is a powerful collaboration between Japan's traditional Noh theatre and Korea's vibrant nongak. Inspired by a 1993 documentary featuring the wife of a Korean forced laborer, the piece honors lives lost to war and violence. Borrowing verses from the ancient Baekje song “Jeongeupsa,” the work offers timeless comfort and reflection. Noh's restrained expression gives weight to historical sorrow, while the rhythmic energy of nongak awakens buried emotions. Crossing genres and borders, this performance becomes a shared space for mourning, healing, and imagining a future of coexistence.

노가쿠: 노와 교겐

Nohgaku: Noh and Kyogen

©MAEJIMA YOSHIHIRO



2025.9.19.(금) 19:30 120분 (휴식 없음)

〈나니와-네온교쿠(교겐)-기요츠네〉

2025.9.20.(토) 15:00 90분 (휴식 없음)

〈시미즈(교겐)-하고로모〉

2025.9.20.(토) 19:30 100분 (휴식 없음)

〈붓시(교겐)-텐코〉

전석 30,000원

초등학생 이상 (2018년 12월 31일 이전)

노가쿠 연출·출연 | 시미즈 간지

동아시아 전통 예술의 깊이를 탐색하는 이번 축제의 여정 속, 일본의 대표적인 고전무대예술 노가쿠의 정수를 소개한다. 오랜 세월 전해 내려오며 현재까지도 일본에서 사랑받는 노와 교겐의 주요 작품을 전통 형식에 충실한 무대로 선보이며 노가쿠의 아름다움을 전한다. 상징적이면서도 절제된 몸짓, 음악과 무용, 연기가 하나 되어 인간의 감정을 섬세하게 풀어내는 노의 대표작 〈나니와〉 〈기요츠네〉 〈하고로모〉 〈텐코〉와, 일상의 풍자를 담은 교겐의 대표작 〈네온교쿠〉 〈시미즈〉 〈붓시〉까지. 회차마다 색다른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이번 무대는 한국에서 좀처럼 만나기 어려운 일본 전통극의 정수를 생생하게 마주할 기회가 될 것이다.

As part of a journey exploring East Asian traditional arts, the Festival presents the refined beauty of Nohgaku, Japan's classical stage art. Featuring iconic Noh works, *Naniwa*, *Kiyotsune*, *Hagoromo*, and *Tenko*, alongside comic Kyogen pieces like *Neongyoku*, *Shimizu*, and *Busshi*, each performance offers a special audience experience. With symbolic gestures, minimalist expression, and the seamless blend of music, dance, and drama, this is a rare chance in Korea to encounter the essence of Japan's theatre tradition.

2025 대한민국 전통춤 축제

2025 Korean Traditional Dance Festival



2025.10.30.(목) - 2025.10.31.(금)

목·금 19:30

120분 (휴식 없음)

전석 1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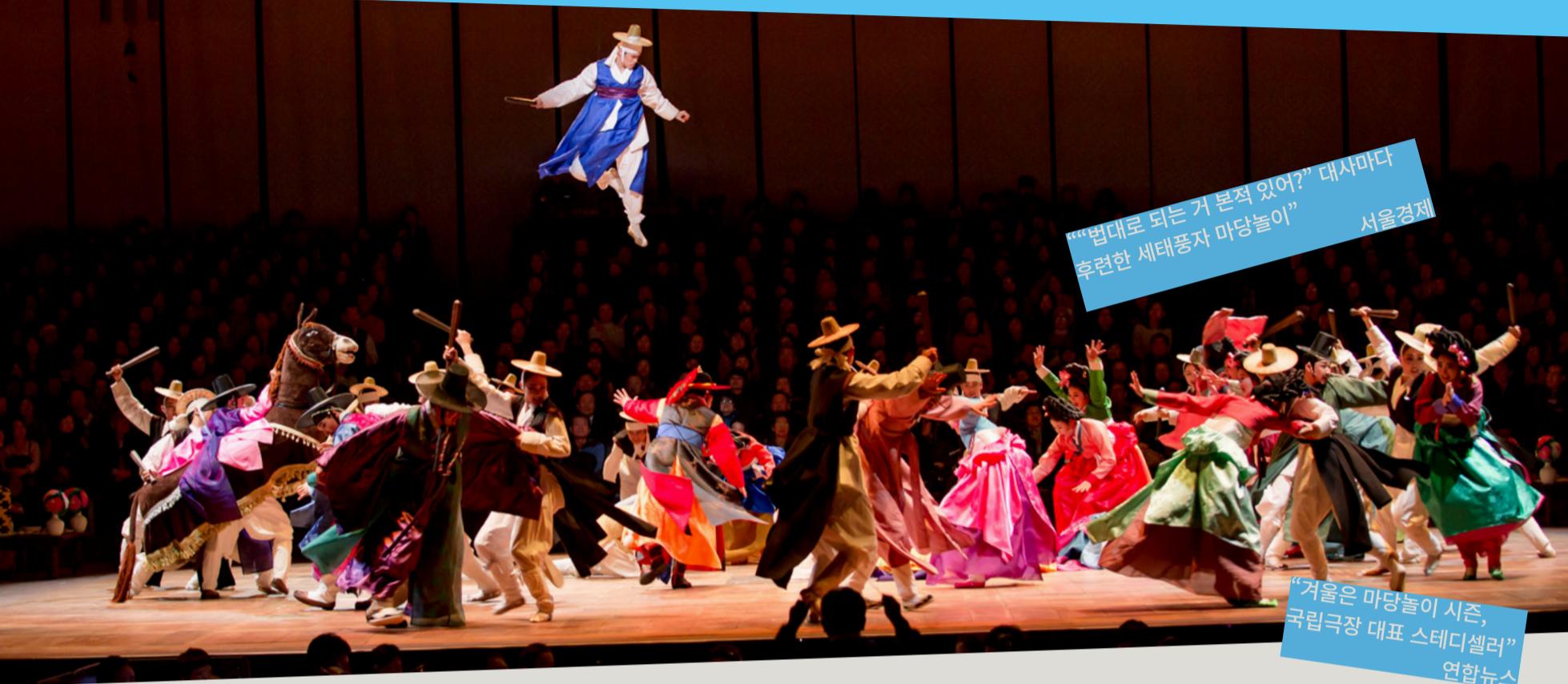
초등학생 이상 (2018년 12월 31일 이전)

1962년 창단된 국립무용단을 필두로 전국에서 모인 10개 무용단이 양일간 펼치는 풍성한 우리 춤 축제! 한국 전통춤의 미학은 붓으로 단숨에 그은 선처럼 공간을 가르는 춤사위에서 시작한다. 인천시립무용단, 경기도 무용단, 천안시립무용단, 청주시립무용단, 대전시립무용단, 익산시립 무용단,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 무용단, 국립남도국악원 국악연주단, 제주특별자치도립무용단과 함께 현대적 감각을 더해 한국무용이 낯선 관객도 편히 감상할 수 있는 작품부터, 우리 춤의 아름다움을 세계적으로 알릴 대표작까지, 한 자리에서 모두 만날 수 있다.

Led by the National Dance Company of Korea, ten dance troupes from across the country gather for a two-day celebration of Korean dance. From the sweeping lines of traditional choreography to contemporary reinterpretations, audiences can experience the depth and beauty of Korean dance all in one place.

마당놀이 홍길동이 온다

Madangnori Hong Gildong



2025.11.28(금) - 2026.1.31.(토)

화·수·목·토·일 15:00 금 19:30

120분 (휴식 없음)

전석 70,000원

2025년 공연

초등학생 이상 (2018년 12월 31일 이전)

2026년 공연

초등학생 이상 (2019년 12월 31일 이전)

원안 | 김지일

연출 | 손진책

작곡 | 박범훈 김성국

안무 | 국수호

연희감독 | 김성녀

연말연시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국립극장 마당놀이가 신작으로 찾아온다. 이번엔 K-히어로 ‘홍길동’이 주인공! 서자로 태어난 설움을 딛고 활빈당 수장이 되어 부패한 세상을 향해 통쾌한 한 방을 날리는 홍길동의 이야기를 유쾌하게 풀어낸다. 재치 있는 입담과 시원한 풍자, 배꼽 잡는 해학이 어우러져 웃음과 감동을 선사한다. 공연 전 옛 나눔부터 뒤풀이 출판까지, 잔칫집 같은 분위기 속에서 남녀노소 누구나 어깨를 들썩일 수 있는 흥겨운 시간이 펼쳐진다. 동에 번쩍, 서에 번쩍! 수십 명의 홍길동이 무대에 동시에 등장하는 분신술은 관객의 눈을 사로잡을 백미. 올겨울, 정의의 아이콘 홍길동이 온다!

The National Theater's beloved year-end Madangnori returns with a brand-new hero, Hong Gil-dong! Born an outcast, Hong rises as the leader of a righteous band to strike back at a corrupt world. Packed with clever wordplay, sharp satire, and laugh-out-loud humor, the show promises joy for all ages. From pre-show treats to a festive dance party finale, this lively celebration invites everyone to join in. Don't miss the dazzling moment when dozens of Hong Gil-dongs fill the stage at once!

국립극장 기획

공생,원

Coexistence,One



2025.12.11.(목) - 2025.12.14.(일)
목·금 19:30 토·일 15:00

100분 (휴식 없음)

R 40,000원
S 30,000원

초등학생 이상 (2018년 12월 31일 이전)

극본 | 정준
작곡 | 황경은
연출 | 김달중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음악극 <공생,원>은 ‘한국 고아의 어머니’로 불린 다우치 치즈코(윤학자)의 삶을 무대 위에 따뜻하게 되살린다. 아동복지시설 ‘공생원’의 창립자인 남편이 실종된 후, 그녀는 홀로 3천 명이 넘는 아이들의 부모가 되었다. ‘윤학자’라는 이름은 남편의 성과 자신의 이름을 한국식으로 조합해 스스로 붙인 이름이자, 두 나라 사이를 잇는 다리 같은 상징이 되었다. 국경과 시대를 넘어선 헌신과 사랑, 그리고 기억의 힘이 긴 여운을 남긴다.

Based on a true story, *Coexistence, One* warmly portrays the life of Dawuchi Chizuko—also known as Yoon Hak-ja, hailed as the “mother of Korean orphans.” After her husband, founder of the orphanage GongSaengWon, went missing, she became a parent to over 3,000 children. The name “Yoon Hak-ja” symbolically bridged Korea and Japan. The play reflects on cross border devotion, love, and the enduring power of memory.

2026 함께, 봄

2026 The Spring Companion

“장애 뛰어넘은 무대”
이데일리

2026.4.11.(토) | 15:00

100분 (휴식 15분 포함)

전석 10,000원

초등학생 이상 (2019년 12월 31일 이전)

연주 | 한빛예술단

국립극장의 따스한 봄맞이 연주회 <함께, 봄>이 올해로 5주년을 맞는다. 2022년 첫 무대를 시작으로 매년 봄마다 찾아오며 이제 봄의 시작을 알리는 반가운 약속처럼 자리 잡았다. 이번 무대 역시 장애와 비장애인의 경계를 넘어, 오직 음악으로 하나 된 연주자들이 아름다운 하모니를 들려 준다. 특히, 시각장애 전문 연주자들로 구성된 한빛예술단이 카네기홀, 케네디 센터를 누빈 음악적 역량을 유감없이 발휘하는 무대를 꾸민다. 따스한 마음과 울림이 깃든 이 특별한 연주는 올봄, 관객의 일상에도 작은 빛이 되어줄 것이다.

Celebrating its 5th anniversary, the National Theater's spring concert *The Spring Companion* returns as a cherished seasonal tradition. Since 2022, the performance has signaled the start of spring with its heartfelt message. Musicians with and without disabilities come together, united solely by music, to create a moving harmony. This year features the Hanbit Arts Ensemble, renowned for their visually impaired performers, joined by international artists who have graced Carnegie Hall and the Kennedy Center. A warm and resonant concert that will brighten the everyday moments of audiences this spring.

당신 좋을 대로

As You Like It



2026.5.28.(목) - 2026.5.31.(일)
목·금 19:30 토·일 15:00

90분 (휴식 없음)

R 40,000원

S 30,000원

초등학생 이상 (2019년 12월 31일 이전)

연출 | 박지혜

셰익스피어의 희곡〈당신 좋을 대로〉와 동아연극상 수상에 빛나는 연출가 박지혜의 만남! 권력 다툼 속 숲으로 망명한 인물들이 자유와 사랑을 찾아가는 여정을 유쾌하고 따뜻하게 그려낸다. 시대를 초월해 여전히 유효한 고전의 메시지를 박지혜 연출 특유의 감각으로 풀어내며, 익숙한 이야기 속에서 색다른 매력을 발견하게 한다. 특히 이번 공연은 수어 통역, 자막, 음성 해설 등 다양한 무장애 요소를 갖춰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무대로 완성된다. 동시대성이 맞닿은 고전이 박지혜 연출을 만나 어떻게 다시 쓰일지 달오름극장에서 확인해 보자.

Shakespeare's *As You Like It* meets acclaimed director Park Ji-hye in a heartwarming and witty reinterpretation. Set against a power struggle, the story follows exiles in the forest as they search for freedom and love. Park brings fresh charm to this timeless classic, revealing its contemporary relevance with her signature style. This inclusive production features sign language interpretation, subtitles, and audio description, ensuring accessibility for all. Experience how a beloved classic is reimagined for today's audience at Daloreum Theater.

공동주최 Co-present

공연명을 클릭하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광복 80주년 기념음악회 화합	50	호두까기인형 in Seoul	59
라이즈 댄스 페스티벌	51	더 벨트	60
위험한 놀이터	52	더블 빌: 김성용 & 윌리엄 포사이스	61
로미오 + 줄리엣	53	한국 가곡의 모든 것	62
춤·소리·어울림 토지	54	조씨고아, 복수의 씨앗	63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	55	더 드레서	64
인어공주	56	몽유도원	65
룸 위드 어 뷔	57	오지게 재밌는 가시나들	66
긴산조 협주곡 II	58	반야 아재	67

국립극장 광복 80주년 기념음악회 화합

80th Liberation Anniversary Concert: Harmony



2025.8.20.(수) | 19:30

100분 (휴식 있음)

전석 10,000원

초등학생 이상 (2018년 12월 31일 이전)

지휘 | 홍석원

협연 | 이용구 (대금)

연주 | 국립국악관현악단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with 국립심포니콘서트오케스트라

국립극장 광복 80주년 기념음악회 <화합>은 광복의 의미를 음악으로 되새기며, 한국의 관현악단과 서양 오케스트라가 하나의 무대에서 만나는 특별한 공연이다. 1부는 국립국악관현악단이 ‘아리랑 환상곡’, 대금 협주곡 ‘죽향’, ‘하나의 노래, 애국가’를 통해 우리 소리의 아름다움과 시대의 기억을 섬세한 선율로 풀어낸다. 2부는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국립심포니 콘서트오케스트라가 드보르자크 교향곡 9번 ‘신세계로부터’를 연주하며, 변화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진다. 아리랑에서 신세계 까지, 두 음악이 어우러지는 순간 진정한 ‘화합’의 울림을 선사할 것이다.

To mark the 80th anniversary of Korea's Liberation, the National Theater of Korea presents *Harmony*, a commemorative concert uniting Korean and Western orchestras on one stage. In Part 1, the National Orchestra of Korea performs Arirang Fantasy, Jukhyang (a daegeum concerto), and One Song: Aegukga, capturing Korean sound and historical memory in rich tones. Part 2 features the Korean National Symphony Orchestra and the Korean National Concert Orchestra with Dvorak's Symphony No. 9 "From the New World", offering comfort and reflection. From Arirang to the New World, this powerful meeting of music promises a true resonance of harmony.

라이즈 댄스 페스티벌

Rise Dance Festival



“세계 최고의 컨템포러리 무용단체인 NDT2(네덜란드 댄스 시어터)
무용수들과 한국 최고의 무용수로 인정받는 기무간, 김혜현, 김규년,
K-ARTS무용단이 협업하는 갈라 공연 무대”

예술감독 | 신창호

기획 | 김태경

더 베스트 컨템포러리 댄스 컬렉션

The Best Contemporary
Dance Collection

2025.8.20.(수) - 2025.8.21.(목)

수·목 19:30

105분 (휴식 15분 포함)

R 100,000원

S 80,000원

A 60,000원

초등학생 이상 (2018년 12월 31일 이전)

세계적 안무가 에드워드 클러그, 줄리아노 누니스, 마르코 괴케 등의
베스트 작품들에 함께 작업한 6명의 NDT2 출신 무용수들이 내한한다.
무용수들은 툰 로바흐, 아야 미사키, 알렉산더 앤더슨, 페이 반 바, 아담
러셀 존스, 이브-마리 달쿠르 등과 함께 <스테이지 파이터> 스타안무가 겸
무용수 기무간, 김혜현, 김규년, K-ARTS무용단이 출연해 최고의 댄서들이
펼치는 압도적인 무대가 공개된다.

Six acclaimed dancers from NDT2, known for performing works by Edward Clug, Juliano Nunes, and Marco Goecke, make their way to Korea. Featuring Toon Lobach, Aya Misaki, Alexander Anderson, Fay van Baar, Adam Russell Jones, and Yves-Marie Dalcourt, the stage also welcomes star choreographers-dancers KIMUGAN, Kim Hye-hyun, Kim Gyu-nyeon, and K-ARTS Dance Company.

탄츠올림프 아시아 갈라

Tanzolymp Asia Gala

2025.8.24.(일) | 17:00

120분 (휴식 없음)

전석 5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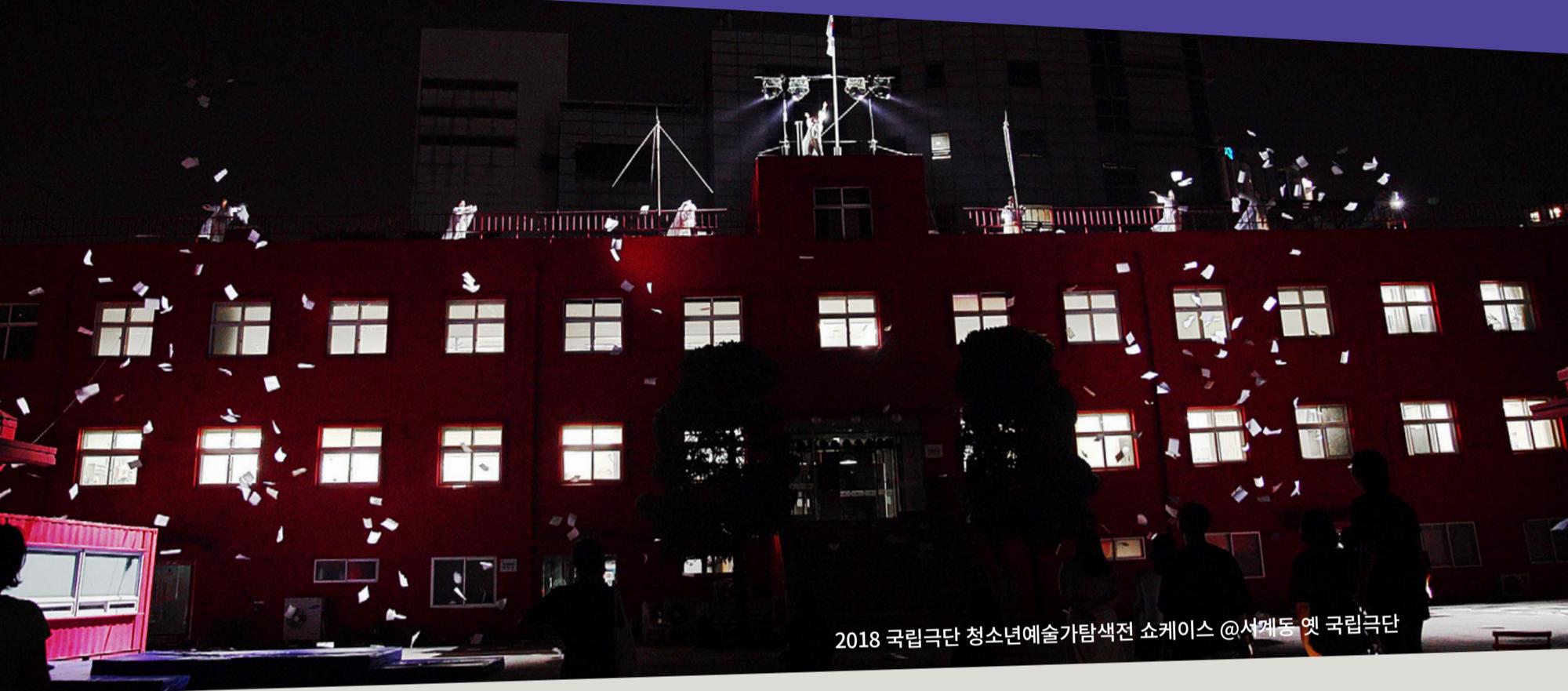
초등학생 이상 (2018년 12월 31일 이전)

국내외 콩쿨 수상자들이 선보이는 갈라 공연으로, 한국무용·발레·현대무용
등 다양한 장르의 무대가 펼쳐진다. 한국 무용계를 이끌 차세대 무용수들
의 열정과 기량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This gala brings together award-winning dancers from Korea and abroad, showcasing Korean dance, ballet, and contemporary works, a vibrant stage that celebrates the next generation of Korea's dance scene.

위험한 놀이터

Dangerous Playground



2018 국립극단 청소년예술가탐색전 쇼케이스 @서계동 옛 국립극단

2025.8.28.(목) - 2025.8.31.(일)
목·금 19:30 토 15:00, 19:30
일 15:00

70분 (휴식 없음)

전석 35,000원

초등학교 5학년 이상 *11세 이상
(2014년 12월 31일 출생자까지)

구성·미술·연출 | 김경희

음악감독 | 박혜리

드라마투르그 | 이미경

프로덕션매니저 | 김민경

조연출 | 김두리

작품은 연출가이자 무대미술가, 창작그룹 노니의 대표인 김경희가 2018년 국립극단 어린이청소년극연구소의 ‘청소년예술가탐색전’을 기반으로 한 청소년극이다. ‘관계’와 ‘기술’에 집중해, 극장 시스템과 신체가 만나 틀을 깨고 소통하는 과정을 통해 ‘청소년기’를 그린다. 파쿠르, 서커스, 연극이 결합된 형식을 통해 세계를 감각하고 해석하는 탐구의 시간이 역동적인 움직임으로, 때로는 정교하고 유연한 연대로 펼쳐진다. 충돌과 확장, 한계와 도약이 교차해 빛어내는 긴장과 유희는 엄청난 에너지로 응축되어 나를 새롭게 마주하는 순간을 담아낸다.

Directed and designed by Kim Kyung-hee, head of Creative Group NONI, this youth play stems from the 2018 “Emerging Artists for Youth” program at the National Theater Company of Korea. Focusing on the themes of connection and technology, it portrays adolescence through the interaction between theatrical systems and the human body, breaking molds and forging new forms of communication. The show blends parkour, circus, and theater, turning the stage into an exploration of the world through sensory experience and interpretation. Bursts of kinetic energy unfold through precise movements and fluid collaboration, capturing the tension and play that arise from collision, expansion, limitation, and leap. The result is a powerful moment of self-encounter.

로미오 + 줄리엣

Romeo + Juliet



2025.9.26.(금) - 2025.9.27.(토)

금 19:30 토 17:00

135분 (휴식 15분 포함)

R 120,000원

S 100,000원

A 70,000원

B 50,000원

C 30,000원

초등학생 이상 (2018년 12월 31일 이전)

안무 | 셉팀 웨버

음악 | 세르게이 프로코피예프

홍콩발레단의 〈로미오 + 줄리엣〉은 1960년대 홍콩의 감성을 입은 고전의 재해석이다. 셰익스피어의 운명적 사랑 이야기는 안무가 셉팀 웨버의 독창적인 해석을 통해 강렬하고도 섬세한 춤으로 완성된다. 네온사인으로 물든 밤거리, 쿵푸 스타일의 액션, 활기찬 마작, 고풍스러운 치파오 의상이 발레와 어우러져 옛 홍콩 영화 특유의 감성을 생생히 담아낸다. 고전과 현대, 동양과 서양의 경계를 허문 작품으로 2023년 미국 투어에서 호평을 받은 바 있는 〈로미오 + 줄리엣〉. 익숙한 이야기 속 낯선 풍경이 색다른 감동으로 다가올 시간, 지금 무대 위에서 펼쳐진다.

Hong Kong Ballet reimagines the Shakespearean classic *Romeo + Juliet* in the vibrant spirit of 1960s Hong Kong. Choreographed by Septime Webre, this piece infuses the timeless tale of fated love with electrifying and nuanced movement. Neon-lit streets, kung fu-inspired action, lively mahjong games, and elegant qipao dresses collide with classical ballet to evoke the nostalgic charm of old Hong Kong cinema. By bridging classical and contemporary, East and West, this reinterpretation received high praise during its 2023 U.S. tour. A familiar love story told in an unfamiliar setting, *Romeo + Juliet* promises a striking new emotional experience on stage.

전유오

춤·소리·어울림 토지

Dance Performance 〈Land〉

“전유오는 여성의 삶을 중심으로 몸의 언어를
통해 정체성과 여정을 표현한 무용가”

탄 니엔

“‘아시아 여성의 운명’ 등 여성의 삶에
대한 고찰을 작품으로 발표해온 무용가”
사이공 타임즈



2025.10.2.(목) - 2025.10.3.(금)
목 19:30 금 17:00

105분 (휴식 15분 포함)

R 50,000원
S 35,000원
A 20,000원

초등학생 이상 (2018년 12월 31일 이전)

총연출·안무 | 전유오
원작 | 박경리
협력안무 | 흥 푹 응우옌
음악 | 버드

대한민국의 저명한 대하소설 박경리의 『토지』를 춤과 소리가 어우러진 작품으로 만난다. 5부 중 1부를 기반으로 하며, 원작에 담긴 깊은 한(恨)은 희망으로, 연민은 생명의 능동성으로 승화하여 민족의 서사와 시대의 기록, 한국인의 감수성과 정체성을 조명하고자 한다. 연출과 안무는 한국과 베트남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한국무용의 아름다움을 전하고 한국적 움직임을 기반으로 한 창작활동을 해온 무용가 전유오가 맡아 사람과 땅을 기반으로 한 공동체와 정체성에 대한 사유를 하나의 어울림으로 풀어냈다. 춤·소리·어울림 〈토지〉는 올가을 우리의 ‘뿌리’를 돌아보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다.

The monumental Korean novel the 『Land』 by Park Kyung-ni is reimagined as a multidisciplinary performance blending dance and music. Based on Part 1 of the five-volume epic, the adaptation transforms the novel's deep sense of han (a uniquely Korean expression of grief and longing) into hope, and its compassion into a life-affirming vitality. The performance sheds light on the Korean national narrative, historical memory, and cultural identity. Directed and choreographed by Jeon Yu-oh, Korean dancer active in both Korea and Vietnam, the work draws on Korean movement aesthetics to explore the bonds between people and land, community and identity. *Dance Performance 〈Land〉* promises a profound reflection on our roots this autumn.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

A Streetcar Named Desire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

A STREETCAR
NAMED DESIRE



2025.10.9.(목) - 2025.10.10.(금)

목·금 15:00, 19:00

100분 (휴식 없음)

R 70,000원

S 50,000원

A 30,000원

12세 이상 (2013년 12월 31일 이전)

원작 | 테네시 윌리엄스

연출 | 조금희

각색 | 박경희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는 테네시 윌리엄스에게 뉴욕 극비평가협회상, 풀리처상을 안겨주며 그를 미국 주류 극작가 반열에 올려놓은 작품이다. 개인주의와 물질주의의 차가움이 따뜻한 인간주의와 정신주의로 전환되는 요소를 통해 인간의 욕망과 좌절, 희망과 현실 사이의 갈등을 섬세하게 드러낸다. 예민한 감수성의 소유자로 과거의 환상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전형적인 아웃사이더 여주인공 블랑쉬. 그녀가 감각적이고 지극히 현실적인 스탠리의 세계에 발을 들이면서, 상이한 두 인물의 갈등이 본격적으로 펼쳐진다.

A Streetcar Named Desire was published in 1947 and won Tennessee Williams the New York Drama Critics Circle Award and the Pulitzer Prize, putting him in the ranks of mainstream American playwrights. It was also made into a movie, and Vivien Leigh as Blanche and Marlon Brando as Stanley gave passionate performances, winning four Academy Awards: Best Actress, Best Supporting Actress, Best Supporting Actor, and Best Art Direction. It is a work that delicately depicts the conflict between human desire and frustration, hope and reality, with elements of individualism and materialism turning into warm humanism and spiritualism. Blanche, a typical outsider with a sensitive personality who cannot settle for reality and lives only by holding onto past fantasies, is placed in Stanley's world, which is both sensuous and extremely realistic, and portrays the conflict between two different characters.

인어공주

The Song of Mermaid



2025.10.10.(금) - 2025.10.12.(일)

금 19:30 토 14:00, 19:30

일 14:00

120분 (휴식 20분 포함)

VIP 100,000원

R 80,000원

S 50,000원

A 30,000원

초등학생 이상 (2018년 12월 31일 이전)

작·연출 | 김선희

안무 | 유희웅

협력안무 | 김현웅

음악 | 안톤 룹첸코

인어공주는 난파된 배에서 왕자를 구하고 산호피리로 사랑을 전한다. 바다 축제 날, 난파선과 인간의 물건이 모인 곳에서 왕자를 그리워하다 바다왕에게 들키고 꾸지람을 받는다. 사랑을 포기할 수 없었던 인어공주는 마녀를 찾아가 인간이 되어 왕자와 사랑에 빠지지만 마녀의 마법으로 왕자는 이웃나라 공주와 결혼하게 된다. 인어들은 마법의 칼을 건네며 왕자를 죽이면 인어공주가 살 수 있다고 알려준다. 하지만 그녀는 칼을 버리고 산호피리를 불고, 그 소리를 들은 왕자는 마법에서 깨어나지만 결국 인어 공주는 물거품이 되어 사라진다.

A retelling of the classic fairy tale, the mermaid saves a prince from a shipwreck and expresses her love through a coral flute. On the day of the sea festival, she's caught by the king of the sea while longing for the prince among shipwreck debris. Unable to abandon her love, she makes a deal with a sea witch to become human, but the prince, under a spell, marries a neighboring princess. Her mermaid sisters give her a magical dagger, urging her to kill the prince to survive. but she refuses, plays the flute instead, and turns into sea foam. The prince awakens from the spell, but it's too late.

(라)오흐드X론X마르세유 국립 발레단
룸 위드 어 뷰
Room with a View



©Cyril Moreau

2025.10.17.(금) - 2025.10.18.(토)
 금 19:30 토 15:00

70분 (휴식 없음)

R 65,000원
 S 50,000원
 A 30,000원

16세 이상 (2009년 12월 31일 이전)

콘셉트 | 론 (라)오흐드
 음악 | 론
 연출·안무 | (라)오흐드
 출연 | 마르세유 국립 발레단
 협력 | 반클리프 아펠 댄스 리플렉션

채석장에서 기계들은 바위를 자르고 윤을 내며 분주하다. 초자연적인 공간과 기계 뒤에서 론은 난봉꾼들을 위해 거대한 전자음악과 감정적인 풍경을 조각한다. 조각가들이 인간을 블록 안으로부터 해방하기 위한 작업을 하면, 무용수들은 돌의 하얀 부동성에서 탈출하기 위해 춤을 춘다. 샤틀레 극장의 초청을 받은 론은 마르세유 국립발레단을 이끄는 (라)오흐드와 협업해 춤을 위한 봉기, 시위, 반란의 형태를 탐구한다. 작품에서는 기계들이 울부짖는 소리가 공명하며, 새로운 탈출을 시도하고 인류 너머 존재하는 노래를 향한 비행의 선을 그린다.

In a marble quarry, various machines are in action, cutting and polishing the rock. In this otherworldly place and behind his engines, Rone carves sweeping electronic and emotional landscapes he offers to a group of dancers. While sculptors work with marble to “free the human form inside the block” (Michelangelo), the performers dance to escape the stones’ white immobility. Invited by the Theatre du Chatelet for a carte blanche, RONE wanted to work with (LA)HORDE. Together they continue to explore forms of uprising, protest and revolt through dance. Room With A View was also a necessary opportunity for Rone to release a new album, a unique performance in which to let the cries of his machines resonate, inviting us to make new escapes, to draw lines of flight towards songs that exist far beyond mankind...

긴산조 협주곡 II

Sanjo Concerto II



2025.10.26.(일) | 17:00

100분 (휴식 15분 포함)

R 50,000원

S 30,000원

A 20,000원

초등학생 이상 (2018년 12월 31일 이전)

예술감독·지휘 | 권성택

작곡 | 박영란 박범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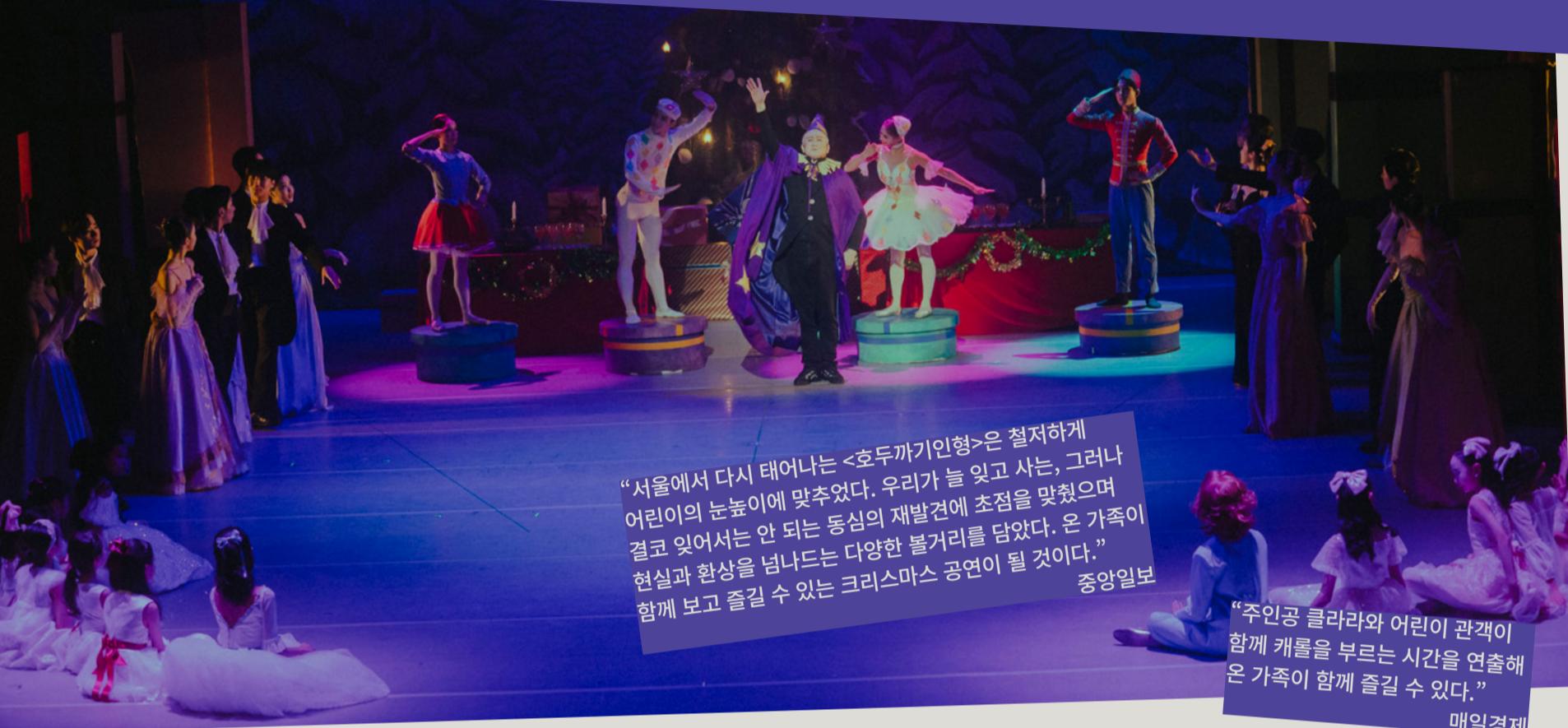
협연 | 지성자 박범훈

〈긴산조 협주곡 II〉은 명인들의 산조 한바탕을 관현악과의 협연으로 재해석 했다. 국립국악원 창작악단이 해오름극장에서 공연을 펼치며 ‘박범훈류 피리산조’와 ‘성금연류 가야금산조’를 관현악 협주곡으로 재탄생 시킨다. 한국창작음악의 거장 박범훈이 유파의 창시자로서 작곡과 협연에 참여 하여 유례없는 무대를 선보이며, 전북무형유산 가야금산조 보유자 지성자는 어머니 성금연의 가야금산조를 작곡가 박영란의 해석을 담아 새로운 연주로 빛낼 것이다. 깊이와 울림을 확장하며 살아있는 현재의 음악으로서 산조를 선보이는 귀중한 순간이다.

A modern reinterpretation of sanjo, a traditional Korean solo instrumental genre, performed in orchestral collaboration. The National Gugak Center's Contemporary Gugak Orchestra presents “Piri Sanjo by Park Bum-hoon” and “Gayageum Sanjo by Seong Geum-yeon,” reimagined into concertos. Featuring composer-performer Park Bum-hoon and gayageum master Ji Seong-ja (daughter of Seong Geum-yeon), this rare performance breathes new life into Korean traditional music, expanding its depth and resonance for modern audiences.

호두까기인형 in Seoul

Nutcracker in Seoul



“서울에서 다시 태어나는 <호두까기인형>은 철저하게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추었다. 우리가 늘 잊고 사는, 그러나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동심의 재발견에 초점을 맞췄으며 현실과 환상을 넘나드는 다양한 볼거리를 담았다. 온 가족이 함께 보고 즐길 수 있는 크리스마스 공연이 될 것이다.”

중앙일보

“주인공 클라라와 어린이 관객이 함께 캐롤을 부르는 시간을 연출해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다.”

매일경제

2025.10.28.(화) - 2025.10.29.(수)
화 19:30 수 18:00

90분 (휴식 없음)

R 70,000원
S 50,000원
A 30,000원

5세 이상 (2020년 12월 31일 이전)

안무·재구성 | 장선희
예술감독 | 강민우
연출 | 이영찬

장선희발레단이 2025년 특별기획한 <호두까기인형 in Seoul>은 어린이를 위한 최고의 선물이자, 온 가족이 크리스마스와 송구영신의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다. 독일작가 E.T.A. 호프만의 동화를 원작으로 러시아의 세계적인 작곡가 차이코프스키와 안무가 마리우스 프티파가 탄생시킨 <호두까기인형>, 장선희발레단은 어린이 관객 눈높이에 맞추어 무대를 새롭게 조명했다. 발레의 대명사 중 하나인 <호두까기인형>은 어린이에게는 꿈과 환상의 나래를 펼치게 하고, 어른에게는 잊고 있던 동심을 되찾게 해주는 마법 같은 작품이다.

Delight in a special Christmas gift for children and families with this enchanting adaptation of *The Nutcracker*, tailored for young audiences. Inspired by E.T.A. Hoffmann's timeless tale and set to Tchaikovsky's beloved score, this magical production brings a world of fantasy and nostalgia to life. Journey into a realm of dreams where children are spellbound and adults rediscover the wonder of the season, an unforgettable year-end experience for all ages.

더 벨트

The Belt



“우리의 여정이 어디로 이어질지
기대에 차서 현기증이 날 정도로
흥미진진하다.”

에브리싱 시어터

“그들의 대담함, 엄청난 에너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종종
완벽하게 말이 되는 그들의 거침없고 환상적인 창의력이
정말 인상적이다.”

시잉댄스

2025.11.6.(목) - 2025.11.9.(일)
목·금 19:30 토·일 15:00, 19:00

90분 (휴식 없음)

R 70,000원

S 50,000원

중학생 이상 (2012년 12월 31일 이전)

안무 | 김보람

음악감독 | 최혜원

〈더 벨트〉는 언어보다 먼저 감각에 닿는다. 무대 위에서 뿐어져 나오는 리듬과 움직임은 관객의 몸을 향해 빠르게 번지고, 어느새 감각이 반응한다. 테크노 사운드에 몸을 맡긴 무용수들은 무대를 가로지르며 달리고, 공간을 퉁기듯 진동한다. 무대와 객석의 경계는 흐려지고, 관객과 무용수는 함께 감각의 흐름을 완성해간다. 이곳은 몰입과 개입이 교차하는 열린 무대 이자, 감각이 연결되고 관계가 새롭게 짜이는 창조의 공간이다. 2024년 런던 초연 당시, 평단의 뜨거운 호평을 받아 오피스 어워드 퍼포먼스 부문 파이널리스트에 올랐다.

The Belt reaches you faster than words. Bodies vibrating with sound. Rhythm without explanation. An energy that surges across the stage and into the audience. Charged by techno, the dancers sprint, collide, and reverberate through space—igniting sensation with every move. At first, you simply watch. Then something shifts. Your breath changes. Your body responds. You find yourself inside the work. The line between stage and seat dissolves. Dancer and spectator become co-creators of a shared, living experience. This is a space of immersion and interaction—a field where perception overlaps and new constellations of meaning emerge. Premiered in London in 2024, *The Belt* received critical acclaim and was named a finalist for the Offies Awards in the Performance category.

국립현대무용단

더블 빌: 김성용 & 윌리엄 포사이스

Double Bill: Sungyong Kim & William Forsythe

©황승택



©황승택



2025.11.8.(토) - 2025.11.9.(일)

토 15:00, 19:00 일 15:00

85분 (휴식 15분 포함)

R 60,000원

S 40,000원

A 20,000원

초등학생 이상 (2018년 12월 31일 이전)

〈크롤 Crawl〉

안무 | 김성용

〈하나의 편평한 것, 복제된

One Flat Thing, reproduced〉

안무 | 윌리엄 포사이스

국립현대무용단 김성용 예술감독과, 혁신적인 안무가 윌리엄 포사이스의 더블빌 무대. 김성용의 신작 〈크롤〉은 그의 움직임 방법론 ‘프로세스 인잇’을 바탕으로 한 〈정글〉의 프로세서들이 함께한다. ‘크롤’은 인류 최초의 처절한 노력, 삶을 위한 전략적 퇴행, 안전으로의 회귀며, 춤은 과거와 현재, 미개와 문명, 불안과 확신을 잇는 혁신이다. 윌리엄 포사이스의 〈하나의 편평한 것, 복제된〉은 네덜란드 댄스 시어터, 퍼시픽 노스웨스트 발레단 등 유수 무용단을 통해 사랑받은 대표작으로, 선발된 한국 무용수 19명이 국내에서 처음 선보인다.

A double bill by the Korea National Contemporary Dance Company. *Crawl* is a new show by Artistic Director Sungyong Kim, using his movement methodology ‘Process Init’ and evolving from his previous show *Jungle*. It explores primal effort, regression as survival, and a return to safety. *One Flat Thing, reproduced* by William Forsythe, a globally acclaimed work, is performed in Korea for the first time by 19 selected Korean dancers.

한국 가곡의 모든 것

All About Korean Art Songs



©황필주

2025.11.11.(화) | 19:30

85분 (휴식 15분 포함)

R 30,000원

S 20,000원

초등학생 이상 (2018년 12월 31일 이전)

지휘 | 민인기

합창 | 국립합창단

관현악 | 군포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

깊어가는 가을, 국립합창단이 선사하는 우리 가곡의 향연.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이번 무대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 사랑과 기다림, 계절의 정취가 어우러져 한국 가곡의 깊은 감성을 전한다. 아름다운 시어와 주옥 같은 선율의 우리 가곡은 마음을 울리는 감동을 안겨주며, 국립합창단이 위촉하여 창작된 작품과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명곡들을 더해 풍성한 무대를 완성한다. 세대를 잇는 정서적 공감과 음악을 통해 관객에게 따뜻한 위로와 깊은 울림을 전하며, 가을의 정취 속에서 한국 가곡의 다채로운 매력과 아름다움을 느껴보길 바란다.

As autumn deepens, the National Chorus of Korea presents a celebration of Korean art songs. This concert, which the whole family can enjoy together, conveys the deep emotions of Korean songs through themes of longing for home, love and waiting, and the changing seasons. With poetic lyrics and exquisite melodies, these beloved songs evoke heartfelt emotions. The program features not only nostalgic classics but also newly commissioned works by the National Chorus of Korea, creating an even richer musical experience. This performance promises to deliver warmth and deep resonance to the audience, fostering emotional connection across generations through the power of music. We invite you to immerse yourself in the beauty and diversity of Korean art songs in the atmosphere of autumn.

조씨고아, 복수의 씨앗

The Orphan of Zhao: Seeds of Revenge



“조씨고아, 보고 또 봄도 남는 명작의 여운”
서울신문

“100번을 봄도 눈물바다...
연극 ‘조씨고아’ 100번째
공연도 만원”

조선일보

2025.11.21.(금) - 2025.11.30.(일)
화·수·목·금 19:30 토·일 15:00

150분 (휴식 15분 포함)

VIP 80,000원
R 60,000원
S 40,000원
A 20,000원

중학생 이상 (2012년 12월 31일 이전)

원작 | 기군상
각색·연출 | 고선웅

〈조씨고아, 복수의 씨앗〉은 ‘동양의 햄릿’이라 불리는 중국 4대 비극 『조씨고아』(원작 기군상)를 연출가 고선웅이 각색, 연출한 작품으로, 초연 당시 폭발적인 호응과 함께 동아연극상 대상 등 각종 연극상을 휩쓸며 명실공히 연극계 최고의 작품으로 평가받았다. 해를 거듭하여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준 작품은 어느덧 7번째 재공연을 맞이하며 국립극단의 대표 레퍼토리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이번 해는 작품 10주년을 맞이하여 더욱 웅장해진 스케일로 관객과 만난다.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 올라 기념비적인 무대로 2025년 한 해의 대미를 장식할 예정이다.

Since its premiere in 2015, The Orphan of Zhao: Seeds of Revenge has recorded numerous sold-out shows and standing ovations over six successful seasons, thus firmly and unapologetically establishing itself as a representative production in the NTCK's repertoire. It returns to the stage towards the end of this year to charm audiences once again. Director Koh Sun-woong takes a quintessentially humorous and rhythmic approach to unravel the majestic saga. Featuring a cast of both familiar and fresh faces, it brings a sense of warmth to the days leading up to the end of the year. Widely recognized as the creme de la creme of the theatrical world, The Orphan of Zhao: Seeds of Revenge continues to resonate with audiences through the powerful collaboration of the creative team and the compelling performances of the actors.

(주)나인스토리

더 드레서

The Dresser



2025.12.27.(토) - 2026.3.1.(일)

화·수·목 19:30 금 15:00, 19:30

토 14:00, 18:00 일 14:00

*1회 공연 및 특별 회차

2025.12.27.(토) 18:00, 2026.1.1.(목) 15:00 1회

2026.2.18.(수) 14:00, 18:00 2회 공연

*2026.2.17.(화) 공연 없음

100분 (휴식 없음)

R 88,000원

S 66,000원

2025년 공연

12세 이상 (2013년 12월 31일 이전)

2026년 공연

12세 이상 (2014년 12월 31일 이전)

작가 | 로널드 하우드

각색·연출 | 장유정

협력연출 | 박제영

번역 | 박소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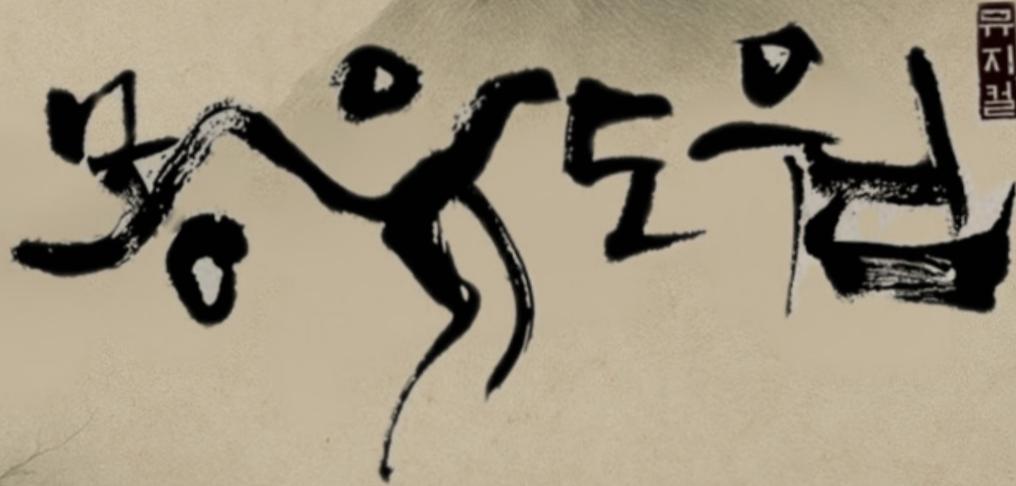
음악감독 | 고명진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인 1942년 영국 어느 지방의 한 극장. 16년 동안 ‘선생님’의 드레서로, 누구보다 가까운 곳에서 그와 함께한 ‘노먼’. ‘리어왕’의 227번째 공연의 막이 오르기 직전, 선생님이 갑자기 이상 행동을 보인다. 모두가 공연을 취소하길 바라지만 노먼은 예정대로 극을 올리려 한다. 그러나 부족한 배우 인원, 첫 대사를 잊은 선생님, 공연 직전 올리는 공습경보까지 상황은 위태롭기만 하다. 영화 <피아니스트>로 아카데미 각본상을 수상한 작가 로널드 하우드 원작의 탄탄한 대본과 배우들의 명연기가 선사하는 연극의 정수를 만나보자.

Set in a British theater in 1942 during WWII, The Dresser follows Norman, a devoted assistant to an aging actor (“sir”) preparing for his 227th performance of King Lear. As the war rages and the actor falters, Norman insists the show must go on. Based on Ronald Harwood’s acclaimed play (Oscar-winning screenwriter of The Pianist), this powerful drama highlights the love, loyalty, and chaos behind the curtain.

몽유도원

Fatal Beauty In Dream



2026.1.27.(화) - 2026.2.22.(일)

화·목 19:30 수·금 14:30, 19:30

토·공휴일 14:00, 19:00 일 14:00

*1회 공연 및 특별 회차

2026.2.17.(화) 19:00, 2.18.(수) 14:00, 19:00

160분 (휴식 20분 포함)

VIP 160,000원

R 130,000원

S 100,000원

중학생 이상 (2013년 12월 31일 이전)

프로듀서 | 윤홍선

연출 | 윤호진

원작 | 최인호

극작 | 안재승

뮤지컬 〈몽유도원〉은 원작 소설 『몽유도원도』를 각색한 작품으로, 전통 설화가 담고 있는 사랑에 대한 원형적 메시지와 시각적 아름다움을 동시대의 감각으로 재해석한 뮤지컬이다. 운명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변치 않는 고대의 아름다운 사랑이야기를 농담과 여백이 살아있는 한 폭의 동양화처럼 무대 위에서 표현한다. 또한 정가와 판소리 같은 한국 전통음악의 요소가 가미된 음악을 통하여 동양의 아름다움을 담은 본 작품의 특성을 극대화하고 관객들을 익숙하면서도 신선한 세계로 인도할 예정이다.

The musical *Fatal Beauty In Dream* is an adaptation of the original novel 『Dream Journey to the Peach Blossom Land』. It reinterprets the archetypal message of love found in traditional folklore and its visual beauty through a contemporary lens. Set against the backdrop of an unchanging, ancient tale of beautiful love caught in the whirlpool of fate, the story unfolds like an Eastern painting—alive with light and shade and negative space. Incorporating elements of Korean traditional music such as jeongga and pansori, the music amplifies the unique identity of the work, guiding audiences into a world that feels both familiar and refreshingly new.

오지게 재밌는 가시나들

Granny Poetry Club



“웃기고 울리는 엉뚱발랄 할머니들...
공연이 ‘나이듦’을 들여다보네.”

조선일보

“제목 그대로 ‘오지게’ 재밌지만 감동적이다.”
문화일보

2026.5.15.(금) - 2026.6.28.(일)
화·목 19:30 수·금 15:00, 19:30
토·일 14:00, 18:00

*1회 공연 및 특별 회차
2026.5.15.(금) 19:30, 2026.6.28.(일) 13:00

80분 (휴식 없음)

전석 77,000원

초등학생 이상 (2019년 12월 31일 이전)

프로듀서 | 강병원

연출 | 오경택

작곡·음악감독 | 김혜성

극본 | 김하진

인생 팔십줄, 사는기 와이리 재민노! 세대 공감 뮤지컬 <오지게 재밌는 가시나들>이 뜨거운 관객 성원에 힘입어 1년 만에 다시 돌아온다. 인기 다큐멘터리 영화 <칠곡 가시나들>과 에세이 『오지게 재밌게 나이듦』을 원작으로 하며, 2024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신작’에 선정되어 2025년 국립극장 하늘극장에서 초연됐다. 할머니, 엄마, 딸이 함께 울고 웃으며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로 큰 사랑을 받았으며, 제12회 이데일리 문화대상 상반기 추천작 및 2025 K-뮤지컬 로드쇼 in 도쿄 참가작으로 선정되며 웰메이드 뮤지컬로서의 작품성을 입증했다.

“Life in your 80s—why is it so fun?” The heartwarming, cross-generational musical *Granny Poetry Club* returns one year after its sold-out debut, thanks to overwhelming audience support. Based on the popular documentary *Chilgok Gashinadeul* and the essay 『A Wildly Fun Old Age』, the show premiered in 2025 at the National Theater of Korea after being selected as a “New Work of the Year 2024” by Arts Council Korea(ARKO). Loved by grandmothers, mothers, and daughters alike, the production was selected as a Recommended Work at the 12th E-Daily Culture Awards and as an official participant of the 2025 K-Musical Road Show in Tokyo—solidifying its reputation as a well-made Korean original musical.

국립극단

반야 아재

Uncle Vanya



2026.5.22.(금) - 2026.5.31.(일)

화·수·목·금 19:30 토·일 15:00

130분 (휴식 미정)

VIP 80,000원

R 60,000원

S 40,000원

A 20,000원

13세 이상 (2013년 12월 31일 이전)

작 | 안톤 체호프

번안·연출 | 조광화

동시대 연극의 결을 섬세하게 짚어온 국립극단이 2026년 5월, 해오름 극장에서 새로운 무대를 마련한다. 국립극단 <파우스트 엔딩>을 통해 감각적인 미장센과 깊이 있는 연출로 독보적인 존재감을 보여준 조광화 연출의 새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작품 역시 고전의 재해석을 통해 밀도 높은 서사를 구축한다. 압도적인 규모의 무대와 강렬한 이미지, 깊이 있는 정서가 어우러져 관객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길 것이다.

In May 2026, the National Theater Company of Korea will present a new work directed by Jo Gwang-hwa, known for his critically acclaimed Faust Ending. His signature visual language and emotional depth promise a compelling reinterpretation of a classic, combining grand scale, striking imagery, and rich storytelling. Stay tuned for this monumental production at the Haeoreum Grand Theater.

인사이드 국립극장

Inside National Theater of Korea

항목을 클릭하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소통하는 국립극장	69
공연예술박물관	70
예술교육 프로그램	71
가치 만드는 국립극장	72

소통하는 국립극장

NTOK Communication

홈페이지 www.ntok.go.kr

국립극장 홈페이지에서 극장의 모든 공연정보 및 최신 소식 등을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 무료회원(엔톡회원)으로 가입하면 국립극장의 다양하고 풍성한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엔톡(NTOK)회원 혜택

- **뉴스레터**
공연과 행사, 예술교육 프로그램 등 국립극장의 각종 콘텐츠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소개합니다. (매월 4회)
* 홈페이지 회원 가입 시 정보수신에 동의한 자에 한함
- **홈페이지 · 전화 · 현장 예매 시 예매 수수료 무료**
- **국립극장 기획공연 최대 20% 할인** * 공연별 차등 적용
- **문자 안내 서비스 및 각종 이벤트 우선 참여기회 제공**

공식 소셜미디어

국립극장의 모든 소식을 빨리 전합니다. 공식 소셜 미디어를 구독하면 보다 생생하고 재미있는 극장 이야기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국립극장은 언제나 여러분과의 소통을 기다립니다.

유튜브	ntong2
인스타그램	ntong_ntong
페이스북	NTOKstory
X	ntok_
네이버 블로그	blog.naver.com/ntok2010
카카오톡 채널	국립극장

국립극장 정기간행물

1977년부터 50년 가까이 제호와 구성을 달리하며 공연예술애호가의 곁을 지켜온 국립극장 정기간행물이 2026년 봄, 계간지로 거듭납니다.

국립극장의 공연 레퍼토리, 축제, 교육, 전시 등 모든 사업을 다양한 시선으로 담아낼 계간지의 탄생에 관객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월간 국립극장은 2025년 12월까지 발행됩니다.

국립극장 계간지 문의 | 02.2280.5831

가장 가까운 국립극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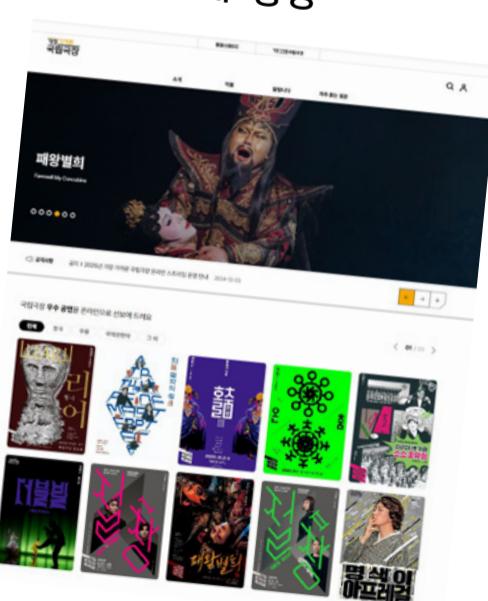
국립극장은 공연의 감동을 더 많은 관객과 나누고자 창극 · 무용 · 국악관현악 등 우수 레퍼토리 공연의 고품질 실황 영상을 제작하고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유통하는 '가장 가까운 국립극장'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객석에서 미처 보지 못했던 다양한 디테일 까지 감상해 보세요.

▪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

archive.ntok.go.kr/gagaguk

▪ 우리동네·학교 국립극장

전국 공공기관, 문예회관, 학교 내 상영



공연예술박물관

Museum of Performing Arts

공연예술박물관

국내 최초의 공연예술 전문 박물관으로 공연예술의 역사를 기록 · 보존 · 공유하기 위해 2009년 12월 23일 문을 열었습니다. 2024년 중반부터는 장충동 국립극장 별관에서 파주 무대예술지원센터 내로 이전하여 2025년 새로운 전시실 개관을 준비합니다. 기존 상설전시실은 공연예술박물관 및 별별스테이지 홈페이지의 VR 전시와 해설 영상으로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박물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세요.

* 공연예술박물관 홈페이지 | ntok.go.kr/Museum
* 별관 내 공연예술자료실은 지속 운영

별별실감극장

별별실감극장에서는 공연이 없는 날에도 자유롭게 방문하여 공연예술 장르와 최신기술이 접목된 몰입형 콘텐츠를 즐길 수 있습니다.

파주 별별실감극장

‘별별실감극장’에서는 4면의 스크린에 펼쳐지는 공연 예술 실감형 영상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별별 체험존’에서는 최신기술을 통해 무대 위 주인공이 되어 보고 극장의 백스테이지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 국립극장 무대예술지원센터 1층 ‘별별실감극장’
- 화-일 | 10:00 – 18:00 (매주 월요일, 1월 1일, 명절 당일 휴관)



공연예술자료실

공연예술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는 공연예술자료실에서 신청 절차를 거쳐 누구나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연예술 아카이브 플랫폼 archive.ntok.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정보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별관 지하 1층 도서자료, 디지털아카이브 열람 가능
- 이용안내 ntok.go.kr/Museum
- 월-금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주말 및 법정공휴일 휴관)



서울 별별실감극장

23년 새롭게 조성된 전시 공간으로 창극과 국악관현악, 무용 등 공연예술 주제의 몰입형 영상 콘텐츠 총 6종을 파주 별별실감극장과 동일하게 감상할 수 있습니다.

- 국립극장 별관 1층 ‘별별실감극장’
- 월-금 | 10:00 – 18:00 (매주 토·일요일, 공휴일 휴관)

*전시 종료 15분 전 입장 마감, 25년 12월 31일까지 운영



해오름 북라운지

박물관의 서재 등 품격있는 독서와 휴식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해오름극장 2층 로비를 전면 개편하여 마련한 공간입니다. 최대 150명이 한 번에 이용할 수 있으며 국립극장 방문객이라면 누구나 공연 관람 외 시간에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화-금 09:00 – 18:00 | 주말 및 공휴일 11:00 – 18:00
공연이 있을 경우 공연 종료시까지 탄력 운영



예술교육 프로그램

Arts Education Programs

국립극장은 공연예술 저변 확대와 미래 관객 개발을 위해 다양한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3개 전속단체(국립창극단·국립무용단·국립국악관현악단)의 우수한 재원과 공연예술 콘텐츠를 활용해 전 연령층을 아우르며, 이 시대 관객과 교감하고 있습니다.



예술피크닉은 어린이 단체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일일체험 프로그램입니다. 소풍 떠나듯 가볍게 전통예술을 즐길 수 있어 어린이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예술학교는 매년 유아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통합예술교육입니다. 특정 주제와 이야기를 바탕으로 전통예술·연극·움직임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을 놀이처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마추어 관현악단은 공연에서 느꼈던 감동을 직접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국악을 취미로 배우며 함께하는 기쁨에 갈증을 느꼈다면, 국립국악관현악단 단원의 지도와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통해 더 큰 무대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전통예술아카데미는 국악기·판소리·한국무용 등 전통 공연예술에 관심이 있다면 누구나 신청 할 수 있는 기초 실기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국립극장 전속단체 단원 등 유수의 강사진에게 배우며, 기본기를 쉽게 익힐 수 있습니다.

꿈나무 스테이지는 청소년 단체를 대상으로 공연예술계 다양한 직업을 배워보는 진로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국립극장 곳곳의 각 분야 전문가와 함께 창·제작 현장을 살피며, 한 편의 공연이 무대에 오르기까지 이뤄지는 다양한 과정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창극아카데미는 판소리로 만드는 음악극인 창극의 창작 전반을 배우는 프로그램입니다. 국립창극단 단원을 비롯해 판소리·연극·무용 등 전문 강사진이 함께하며 수강생의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무대 위에서 펼칠 수 있도록 힘을 보탭니다.

하루 예술은 감각적인 접근으로 예술을 즐기는 성인 대상 일일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하루의 경험을 통해 만난 온전한 쉼이 일상으로 이어져 예술을 꾸준히 즐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기 프로그램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국립극장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가치 만드는 국립극장

NTOK Connect

국립극장은 전통에 기반한 동시대 공연예술의 인적 저변을 넓히기 위해 전통공연예술 창작자 발굴·육성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립극장 전속단체(국립창극단·국립무용단·국립국악관현악단) 작품의 뿌리가 되는 작창 및 극본·안무·작곡 분야의 창작자와 연주자들이 함께 고민하고 성장하여 예술 창작 제작의 단단한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분야별로 공개 모집을 거쳐 선발된 젊은 예술가들은 약 1년 동안 다양한 창작 워크숍, 국립극장 전속단체와의 협업을 통한 작품 개발, 관객·전문가 대상 시연 공연까지 단계별 제작 과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국립창극단

창극 작가 프로젝트

차세대 창극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갈, 신진 창극 작가로의 도약!
2022년부터 이어온 차세대 창작자 발굴 및 양성 프로젝트 <작창가 프로젝트>를 확장시켜, 작창의 기반이 되는 탄탄한 '극본'을 발굴하고 새로운 소재의 창극 작품을 개발해 창극의 외연을 더욱 넓히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1여년간의 멘토링, 창작 워크숍, 작품 구성, 작가와의 협업 등 단계별 제작 과정을 통해 완성된 작품은 시연회로 발표하기도 하며, 국립창극단의 정규 공연으로 발전시켜 제작하기도 합니다.

<2025 창극 작가 프로젝트 시연회> 2025.9.27.(토) - 2025.9.28.(일) 국립극장 하늘



국립무용단

안무가 프로젝트

한국 무용 창작의 미래, 지금 여기에서!
국립극장은 매년 새로운 한국무용 안무가를 발굴하고, 체계적인 제작 시스템 안에서 무한한 상상력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정보경의 <메아리>, 이재화의 <탈바꿈> 등 우수작을 배출했으며, 댄스콘셉트필름 제작, 작품의 장편화, 국립무용단 레퍼토리로의 확장 등을 통해 신진 안무가의 성장과 창작 활성화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2025 안무가 프로젝트> 2025.11.6.(목) - 2025.11.9.(일) 국립극장 달오름

국립국악관현악단

작곡가 프로젝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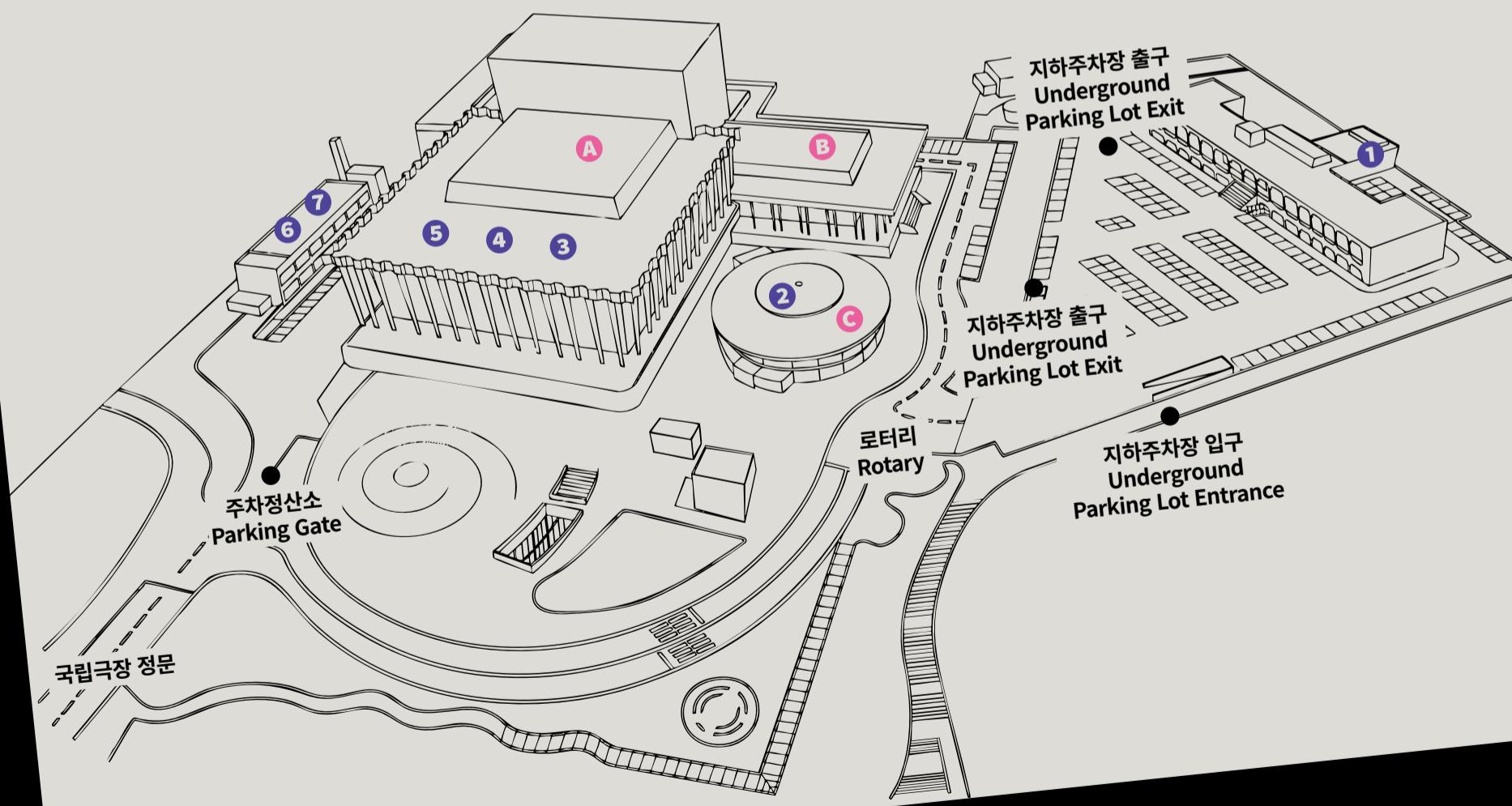
국립국악관현악단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이어온 지휘자 프로젝트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차세대 작곡가 발굴에 도전합니다. 2025년 초 공모를 거쳐 선발된 작곡가들은 6개월간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 진행했습니다. 전통음악 어법을 바탕으로 동시대적 음악을 만들어나가는 현업 작곡가와 지휘자, 연주자 등 각계 전문가들과 워크숍, 멘토링, 정기적인 리딩세션, 내부 시연회 등을 거쳐 완성된 각각의 연주곡이 탄생했습니다. 국립국악관현악과 처음 호흡을 맞춘 신인 작곡가 8명의 신선한 음악을 통해 우리 국악관현악의 미래 가능성을 가늠해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관현악시리즈 II 2025 작곡가 프로젝트> 2025.9.10.(수) 국립극장 해오름



국립극장 공연 및 편의시설

Theaters & Facilities



A 해오름극장 Haeoreum Grand Theater :

프로시니엄 무대를 갖춘 1,221석 (휠체어석 12석 포함) 규모의 대극장
Proscenium stage with 1,221 seats (including 12 wheelchair seats)

B 달오름극장 Daloreum Theater :

프로시니엄 무대를 갖춘 510석 (휠체어석 6석 포함) 규모의 중극장
Proscenium stage with 510 seats (including 6 wheelchair seats)

C 하늘극장 Haneul Round Theater :

원형 무대를 갖춘 627석 규모의 국내 최초 돔형 공연장
First domed theater in Korea with 627 seats

**부속·
편의시설
Affiliated &
Convenient
Facilities**

1 별관 Annex	공연예술자료실 별관 지하1층 Archives Library for Performing Arts B1 ▪ 평일 Mon—Fri 09:00—12:00 / 13:00—18:00	별별실감극장 별관 1층 1F Immersive Studio 'Byeol Byeol' ▪ 평일 Mon—Fri 10:00—18:00	02.2280.4025~6, 5834
2 편의점 Convenience Store	하늘쉼터 하늘극장 1층 1F, Haneul Round Theater	달쉼터 달오름극장 지층 Ground Floor, Daloreum Theater 09:00 — 19:30	02.2280.5817
3 고객지원 센터 Customer Service Center	공연 안내, 티켓 예매, 셔틀버스 운행시간 등 극장 이용 시 각종 문의 및 편의시설 안내 Providing every service for customers such as ticketing, program information and shuttle bus schedule.	▪ 평일 Mon — Fri 09:00 — 18:00 ▪ 주말·공휴일 Weekend · Holidays 10:00 — 18:00	▪ 공휴일인 월요일 (휴관일 휴무) Closed on Observed Holiday Monday ▪ 점심시간 Lunch Break 12:00 — 13:00
4 해오름 북라운지 Haeoreum Book Lounge	해오름극장 2층 2F, Haeoreum Theater ▪ 화—금 Tue-Fri 09:00—18:00	▪ 주말 · 공휴일 Weekend · Holidays 11:00 — 18:00 * 월요일 휴무(휴관일 휴무) Closed on Monday	02.2280.4026, 5834
5 센트럴 윤잇 (Yunit) Restaurant	해오름극장 로비층 LF, Haeoreum Theater ▪ 화—일 Tue—Sun 11:00—22:00		0507.1357.9580
6 구내식당 (하늘자리) Cafeteria	기계동 2층 2F, Machinery Building ▪ 중식 Lunch 11:30 — 13:00 ▪ 석식 Dinner 17:00 — 19:00	* 석식은 예약제로 운영 Dinner is by reservation only	02.2280.5843
7 카페 (하늘자리) Cafe	기계동 2층 2F, Machinery Building ▪ 평일 Mon — Fri 09:00 — 19:30	▪ 주말 Sat — Sun 09:00 — 18:00	02.2280.5843

*운영시간은 공연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The working hours could be changed depending on the theater schedule.

국립극장 오시는 길

Your Visit



버스 By bus

- 420번, 01번 남산순환버스
국립극장 · 반얀트리호텔 정류장 하차
- 144, 301, 7212번
장충동 · 동국대입구 정류장 하차
→ 420번 환승 후 국립극장 하차
- Bus route 420, 01 runs directly past the National Theater of Korea. Alight at 'National Theater of Korea, Banyan Tree Seoul'.
- Routes 144, 301 and 7212 stop on Jangchung-dong, Dongguk Univ. Entrance → Transfer to 420

지하철 By subway

- 3호선 동대입구역(6번 출구, 국립극장까지 도보 15분 소요)
→ 동대입구역 · 장충동 정류장에서
01번 남산순환버스 환승 후
국립극장 · 반얀트리호텔 정거장 하차
- The nearest subway station is Dongguk Univ. on Line No. 3, which is a 15 minute walk. Exit 6 of Dongguk Univ. Station → Transfer to Namsan Circulation Bus 01

국립극장 셔틀버스 By shuttle bus

- 관람(탑승)객의 수요와 정부의 탄소배출 저감 정책에 따라 탄력적 운행

공연 전 Before the performance

타는 곳 Boarding

- 동대입구역(3호선) 6번 출구
남산 방향 100m이동,
동국대입구 · 장충동 정류장
- In front of Namsan Circulation Bus stop,
Exit 6 of Dongguk Univ. Station(Line No. 3)

운행구간 Route

- 동대입구역(3호선) → 국립극장
- Dongguk Univ. Station(Line No. 3)
→ National Theater of Korea

운행시간 Timetable

- 매회 공연 1시간 전부터 20분 전
까지 10분-15분 간격 탄력적 운행
- Every 10—15 minutes from 1 hour to 20 minutes before the performance.

공연 후 After the performance

타는 곳 Boarding

- 하늘극장 앞 셔틀버스 승강장
- In front of Haneul Round Theater

운행구간 Route

- 국립극장 → 동대입구역(3호선)
1번 출구 → 동대문역사문화
공원역(2,4,5호선) 5번 출구 맞은편
광희사거리 앞
- National Theater of Korea → Exit 1 of
Dongguk Univ. Station(Line No. 3) → Across
from Exit 5 of Dongdaemun History and
Culture Park Station(Line No. 2,4,5)

운행시간 Timetable

- 공연 종료 후 25분까지 운행
- Available for 25 minutes after the performance

주차장 이용 안내 Car parking

문의 02.2280.5815

공연 관람객: 5시간 미만 5천원 (공연 관람권 내 바코드로 무인정산기에서 할인 정산)

5,000 won up to 5 hours for ticket holders (Use the barcode on your ticket to get a discount on parking fees.)

2025-2026 국립극장 레퍼토리 시즌 패키지 티켓

2025-2026 National Repertory Season Package Ticket

패키지 티켓 예매 안내

- 모든 패키지는 동일 공연으로 중복 선택은 불가합니다. 또한, 각 패키지 선택 후 일부 공연의 부분 환불 및 취소가 불가합니다.
- 모든 패키지는 국립극장 회원만 1인 2세트 구매 가능하며, 조기매진 될 수 있습니다.
- 패키지 구매 후, 공연별로 좌석을 지정해야 예매가 완료됩니다.
- 좌석 미지정 시, 선택 공연의 매진으로 관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패키지 구매 후, 좌석 미지정 시 선택 공연의 매진으로 관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구매하신 패키지는 해당 패키지의 첫 공연 1일 전 오후 5시까지 취소 가능합니다.
(취소 마감 시간 이후 개별 공연에 대한 부분 환불 및 취소 불가)
- 구입한 패키지 상품을 취소해야 환불이 완료됩니다.
(패키지 상품을 취소하지 않을 경우, 결제 금액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 공연별 관람 연령이 다르니 예매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더 자세한 사항은 국립극장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2026 국립극장 레퍼토리시즌 패키지 티켓

2025-2026 National Repertory Season Package Ticket

2025-2026 국립극장 레퍼토리시즌 패키지 티켓

*시즌 일정표에서 패키지별 아이콘으로 해당 공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소재, 독창적 형식으로 즐기는 국립극장의 가무악

NTOK 가무악 패키지 II NTOK

50% | 100,000 → 50,000원 | S석 (50세트 한정)
국립창극단 <효명>
국립무용단 <귀향(歸鄉)>
국립국악관현악단 관현악시리즈III
<2025 상주작곡가: 손다혜·홍민웅>

새로움을 향한 도전으로 더 멀리!

NTOK 新作 신작 패키지 NTOK

균일가 | 130,000 → 40,000원 | S석 (30세트 한정)
국립창극단 <효명>
국립무용단 <귀향(歸鄉)>
국립국악관현악단 관현악시리즈III
<2025 상주작곡가: 손다혜·홍민웅>
국립극장 기획 <당신 좋을 대로>

끊임없이 생동하는 국악관현악의 현주소!

NOK 시리즈 패키지 II NOK

50% | 100,000 → 50,000원 | R석 (50세트 한정)
국립국악관현악단 관현악시리즈III
<2025 상주작곡가: 손다혜·홍민웅>
국립국악관현악단 관현악시리즈IV
<이병우와 국립국악관현악단>

자유로운 선택으로 완성하는 나만의 시즌

프리패키지 II

40% | R, S석 50세트 (총 100세트)
2026.1.1.-2026.6.28. 작품 중 9작품 이상 선택
*R,S석으로 선택 가능하며, 전 작품 동일 등급으로 구매 가능합니다. (균일석 제외)
*상설공연, 마당놀이 <홍길동이 온다>는 제외됩니다.
*(주)나인스토리 <더 드레서>는 2025.12.27 공연부터 선택 가능합니다.

2026년의 시작은 국립극장과 함께!

NTOK 新年 신년 패키지 NTOK

40% | 80,000 → 48,000원 | 30세트 한정
*<2026 신년 음악회>는 S석이며, 그 외 공연은 전석 균일석입니다.
국립창극단 <소리정담 – 김영자, 김일구 편>
국립무용단 <2026 축제>
국립국악관현악단 <2026 신년 음악회>

신진 안무가들의 작품을 픽업(Pick up)!

NDCK 新進 신진 패키지 NDCK

50% | 60,000 → 30,000원 | S석 (50세트 한정)
국립무용단 <동유도원무>
국립무용단 <탈바꿈>

정기적으로 만나는 우리 소리, 우리 음악의 즐거움

완창판소리 패키지 II

35% | 80,000 → 52,000원 | 균일석 (50세트 한정)
<완창판소리> 2026년 상반기 4편

정오의 음악회 패키지 II

35% | 90,000 → 58,500원 | R석 (100세트 한정)
<정오의 음악회> 2026년 상반기 3편

예매안내

Booking Information

온라인 예매

국립극장 홈페이지 ntok.go.kr

24시간 예매 가능

단, 공연 관람 1일 전에는 오후 5시까지 예매 가능

개별공연 할인

엔톡(NTOK) 회원 최대 20% 공연별 상이

문화패스(만 24세 이하 청소년 혹은 대학생) 30%

경로할인(만 65세 이상) 50%

더 자세한 할인정보는 국립극장 홈페이지 참조

티켓 수령

관람 당일 해당 공연장 매표소에서 수령

공연 시작 1시간 전부터 가능 일부 공연 제외

티켓 수령 시 할인과 관련된 증빙자료 제시

미 지참 시 차액 지불

국립극장

02.2280.4114 / ntok.go.kr

NOL 티켓

1544.1555 / nol.interpark.com/ticket

전화/현장예매

전화

고객지원센터 02.2280.4114

서비스 번호 선택

1번 공연 안내 및 예매

2번 패키지 티켓 안내 및 예매

현장예매

고객지원센터 방문 (해오름극장 L층)

운영시간

평일 09:00—18:00

주말 · 공휴일 10:00—18:00

* 점심시간 12:00—13:00,

* 공휴일인 월요일(휴관일) 휴무

* 공연유무에 따라 탄력 운영

취소 및 변경

공연 관람 1일 전 오후 5시까지 가능

관람 당일 티켓 취소 및 변경 불가

